

2021 신년기획



‘좌절의 터널, 그래도 출구는 있다.’ 본지 92년생 기자들이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서울 종로구 자하문 터널을 걷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절망의 터널서 한줄기 희망을 노래하다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1992년생은 치열한 경쟁에서 크고 작은 성취를 내려 학창시절을 보냈고 특별히 못난 구석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른 살인 지금 이상과 현실의 차이 앞에 수없이 좌절한다. 이투데이는 92년생 기자 4명의 깊이 있는 취재로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92년생을 중심으로 90년대생 삶의 모습을 3회에 걸쳐 풀어봤다.

92년생 김유진 씨는 올해 나이 서른이다. ‘유진’은 1990년대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다. 유진 씨는 1992년생을 대표하는 가상인물로 실제 사례를 모아 재구성했다.

▶ 관련기사 5·6·7·8·9면

유진 씨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후 모 광고대행사에 3년 전 취업했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서울 영등포에서 보증금 1억 원에 30만 원짜리 반전세로 살고 있다. 유진 씨의 아버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해고됐다 재취업했다. 어머니가 맞벌이로 힘을 보태 어려운 시절을 잘 넘길 수 있었다.

유진 씨는 학창 시절 내내 귀밑 5cm 머리를 고수했다. 염색도, 긴 머리도 안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살아왔고
이상과 현실 괴리에 좌절했지만
‘말하는 대로’ 나자신 이루려 노력

된다는 학칙(학교 규칙) 탓이다. 선생님들에게 항의도 해 봤지만 “머리에 신경 쓰다 공부는 언제 할래”라는 꾸중만 들었다.

유진 씨는 성적이 상위권이었지만,

중종 녀름 수 없는 벽을 실감했다. 1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 민지가 서울 목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1대1 고액 과외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납득도 됐다. 유진 씨도 부모님을 졸라 동네 학원에 다녀봤는데 별다른 건 없었다. P2P(개인대 개인) 사이트를 뒤져 ‘둑강(어둑의 강의)’ 파일을 다운받아 공부했다. 인터넷 강의만이 유진 씨의 사교육 통로였다.

유진 씨에게 위안을 안길 공간은 ‘싸이월드(미니홈피)’ 뿐이었다. 학교를 마치면 싸이월드를 확인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설정해 둔 배경음악 ‘프리스타일-Y’를 듣는다. 발 빠른 친구들이 그새 일촌평을 남겼다. 배경음악을 흥얼거리며 친구 싸이월드에 찾아가 일촌평을 ‘반사’ 해줬다. ▶6면에 계속

서지연 기자 sjy@·박미선 기자 only@
박종화 기자 pbell@·박소은 기자 gogumee@

새 비서실장에 유영민

靑 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사진 왼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오른쪽)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됐다. ▶관련기사 4면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했다. LG전자에 입사해 LG CNS 부사장, 포스퀀ICT 사업총괄 사장 등을 거친 기업인 출신이다. 2016년 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갑에 출마했으나 하태경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낙선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신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

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마약과장 등 15년 가까이 검사로 재직했다. 2004-2005년엔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제형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이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일환 기자 whan@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이달 말 시행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13일까지 2주간 일반접견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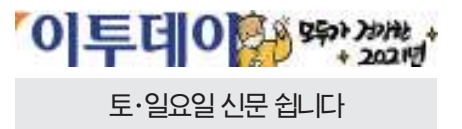
정부가 31일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수용자 일반 접견이 전면 중단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 사용으로 대체된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와 재판 일정도 최소화한다. ▶관련기사 3면

취사장 등 필수작업 외에는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교육도 멈춘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교정시설 신규 수용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2주 격리 기간을 3주로 강화한다. 입소 시 검사를 비롯해 격리 해제 시에도 추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진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해 시험거부로 열리지 않은 의사 국가고시를 올해 2번 치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EU, 中과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 바이든에 ‘찬물’

車·통신 등 중시장 접근성 확대
합작사 폐지·기술이전 금지 약속
美 ‘反中 핵심동맹’ 결집에 차질

브렉시트로 영국을 떠나보낸 유럽연합(EU)이 투자협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합작사 설립 의무 조항 등 중국 진출을 방해했던 요소들이 제거되면서 EU 기업들이 날개를 달게 됐다. 중국시장 문호가 더 넓어지면서 한국 등 전 세계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EU는 7년간의 협상 끝에 이날 투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회의를 하고 나서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미셸 상임

유럽연합(EU)·중국 투자협정 핵심 내용

- 중국시장 개방**
 - 중국 진출 시 합작사 설립 의무 조항 폐지
 - 항공과 운송 서비스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청정 에너지 차량, 클라우드, 금융, 헬스케어 부문서 새 기회
- 중국 정부 역할**
 - 국영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
 -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 이전 금지
 -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과정 투명화
- EU 시장 접근권 확대**
 - 에너지 도매와 소매시장 (거래 플랫폼은 제외)
 -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 (상호주의 메커니즘 따라)



의장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은 EU 기업과 투자자에 전례 없던 수준의 시장 접근권을 약속해 기업 운영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시 주석은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역내 기업들은 자동차에서 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EU 기

업은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과 민간 병원, 부동산, 통신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 분야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를 차려야 한다는 조건은 폐지되고, 중국 국영기업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로 했다.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노동권과 기후변화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중국

은 협정에 따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7년 만의 투자협정 체결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31일 밤 11시(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점으로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통관과 검역 절차가 새로 생겨 양측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영국은 물론 EU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국이 나가면 EU는 인구의 12.9%, 국

내총생산(GDP)의 15.2%(2017년 기준)를 잃게 된다. 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7개국(G7) 참여국이기 때문에 EU의 외교력 손실도 예상된다. 따라서 EU로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다. 미국에 이어 EU 2위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양방향 상품 거래 가치가 하루 10억 유로(약 1조 3378억 원) 이상이어서 위기 타개를 위한 파트너로 적합하다.

중국은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게 됐다. 중국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중국 전선이 유럽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벨기에와 스웨덴 등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EU와의 투자협정 체결은 이를 반전시킬 만한 요소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좁히려 했으나 시작도 하기 전부터 핵심 동맹인 EU로부터 뒤뚱수를 맞은 꼴이 됐다. 최혜림 기자 rog@

‘집값 통계’ 표본수 3배 늘려 신뢰 높인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조사 9400가구 → 3만2000가구

정부와 민간의 부동산 통계기관들이 부동산 시세 조사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재 정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관별 통계수치가 제각각으로 큰 차이를 보여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각 기관은 표본 수를 늘리고 보다 정밀한 조사를 진행해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31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0.06% 올랐다고 설명했다.

민간 통계기관인 KB부동산은 같은 날 발

간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에서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41%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상승폭이 커지면서 0.45% 뛰었다고 밝혔다. 조사 시점이 같은 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의 변동률 차이가 7.5배나 벌어진 것이다. 일주일만 놓고도 격차가 크다 보니 월간과 연간 수치는 더 큰 폭으로 벌어진다.

부동산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0.86% 올랐다고 파악했다. 민간 통계로 월간 변동률보다 낮은 수치다. KB 부동산은 2020년 서울 아파트값이 13.06%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민간 통계기관인 부동산114가 조

사한 수치로도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 11월까지 3%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2월을 합산하면 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 사이에 중간 수준의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이 같은 격차는 주택 표본 수와 조사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 표본은 현재 9400가구 규모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의 반영 비중이 높다.

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주간 조사 표본을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3.4배 늘리기로 했다. 월간 아파트 표본은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두 배 이상, 월간 종합 주택 표본은 2만836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1.6배 각각 확대한다.

이정필 기자 roman@

어도비 플래시 종료... “최신 브라우저 사용하세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Adobe Flash Player) 지원이 31일 종료됐다. 이에 인터넷 사용자와 웹 사이트 제작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간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자들은 ‘Flash Player는 2020년 12월 이후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라는 알림을 받아왔다.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는 브라우저에서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재생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대중화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만 봐도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사례나, 제로데이 공격으로 임의코드 실행에 따른 정보 노출되는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어도비는 2017년 7

월 플래시 플레이어에 대한 지원 종료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이에 따른 업데이트들이 진행되고 있어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0월 27일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에 관한 업데이트 사항을 공지했다. 업데이트를 적용하면 사용자의 운영체제에서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제거된다는 것이다. 구글 크롬, MS 엣지(크로미움 기반), 애플 사파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따로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구버전 엣지와 인터넷 익스플로러11은 올해 여름부터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기능을 제거한다. 박소는 기자 gogumee@

희망은 ON!

정부, 회생법원, 캠프가
온 힘을 모아 재기를 돕겠습니다!

정부의 폭넓은 정책지원
회생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경영환경 조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

캠프의 촘촘한 재기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투자매칭, 자산매입 후 임대(S&LB), 신규자금지원(DIP금융)

회생중소기업 사장님 -
절망은 NO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1588-3570**
온기업 **www.oncorp.or.kr**

‘백신 생산거점’ 몸 푸는 K바이오

제약사 ‘韓 기업 대량생산 설비 갖춰’
녹십자 ‘모더나 위탁생산’ 수주 유력
백신 확보·기술력 제고 시너지 기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지로 급부상했다. 안정적으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지난 수년간 갖고 닦아온 K바이오의 사업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재확인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CMO) 기업으로 GC녹십자가 유력하게 떠올랐다. 이 백신은 지난달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사 백신 생산을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에 위탁생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백신 대량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본 것이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충북 오창공장을 증설해 원료의약품 제조 후 충전·포장 공정(Fill&Finish) 설비를 충분히 마련했다. 해당 공정의 생산 능력은 10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도즈에 달한다.

앞서 GC녹십자는 국제민간기구인 감염병 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에 합의했다.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5억 도즈를 생산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해당 계약의 가치는 2조8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GC녹십자 관계자는 “10억 도즈는 하루 8시간 생산 시 가능한 물량”이라며 “2교대, 3교대로 확장할 경우 생산 능력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모더나의 러브콜이 최종 확정될 경우 생산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 측은 현시점에서 계약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더나의 백신은 우리나라에 2021년 2분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0만 명

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4000만 도즈)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에 공급되는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량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집단 감염)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생산 설비 확충은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 전 세계적 바이오의약품 생산 설비 부족 현상으로 백신 CMO 사업은 갈수록 중요성과 성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국내 백신기업 후발주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을 잇달아 수주한 바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물량으로만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000만 명 분량(2000만 도즈)을 확보, 이르면 2021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코로나 백신의 국내 생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가별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데다 백신의 보관·유통이 대체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글로벌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 수준의 초저온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모더나 백신도 영하 20도에서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냉장 온도인 2~8도에서는 효능이 30일만 유지된다.

유헤은 기자 euna@

英 “승인” 아스트라제네카 美 “보류” 안전성 논란에도 韓 “내달접종”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내달 4일 영국에서 첫 접종을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이 결정된 만큼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가장 먼저 허가 및 도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전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영국 정부는 2주 안에 20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감기를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활성화한 코로나바이러스를 집어넣어 인체에 투입, 면역반응을 끌어내는 전통적 방식으로 개발됐다. 특히 1회당 3~5달러(약 3000~5500원)로 책정돼 지금까지 개발

된 코로나19 백신 중 가장 저렴하다. 냉장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보관·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대가 높다.

이 백신은 투여량에 따라 예방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임상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백신 1회분의 절반을 투약하고 한 달 후 1회분을 온전히 투약한 참가자들의 예방 효과는 90%, 두 차례 모두 1회분 전체 용량을 투약한 이들은 62%로 평균 예방 효과가 70.4% 수준이다. 다만 계절독감 백신의 효과가 통상적으로 40~60%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기준이 50% 선이란 점에서 기능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 심사를 진행 중이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40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유헤은 기자 euna@

고대영 기자 kodae0@

부처별 코로나 대응 난맥상

“구치소 코로나 확산 책임” 법무부 노조, 추미애 고발

‘시험거부 의대생 구제’ 복지부도 시끌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1일까지 900명을 넘어서자 법무부가 뒤늦게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교정시설을 책임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첫 현장점검을 하는 등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공무원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이 이날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465명과 수용자 1298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수용자 1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태가 확산되자 법무부는 이달 13일까지 주간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했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코로나19를 대량 확산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노역 수행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치러지지 않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치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로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지난해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규 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중보건의는 공공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국시에 합격한 신규 의사는 총 3025명이다. 9월 의사 국시를 치르지 않은 2700명과 올해 시험예정인원 3200명을 더해 올해 시험에는 약 6000명이 의사 국시를 치를 예정이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추가 시험이 없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사실상 추가 응시 기회 부여를 두고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Mercedes-AMG SUV Family

NOT AN SUV. AN AMG.

#PerformanceAdventure

Instagram.com/MercedesBenzkr Facebook.com/MercedesBenzKorea Youtube.com/MercedesBenzKorea_Official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www.Mercedes-benz.co.kr

제원 정보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자중9단), 복합연비: 8.3km/ℓ(도시연비: 7.5km/ℓ, 고속도로연비: 9.6km/ℓ), 등급: 5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212g/km
Mercedes-AMG G 63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605kg, 자중9단), 복합연비: 5.7km/ℓ(도시연비: 5.4km/ℓ, 고속도로연비: 6.3km/ℓ), 등급: 5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319g/km
Mercedes-AMG GLA 45 4MATIC+ : 출시 예정 / Mercedes-AMG GLB 35 4MATIC : 출시 예정 / Mercedes-AMG GLE 53 4MATIC+ Coupé : 출시 예정

*상기 제원의 제원 정보는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원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靑 2인자에 ‘경제통’ 발탁… ‘한국판 뉴딜’ 속도전

유영민, ICT 등 현장 경험 풍부
국정과제 수행 적임자로 낙점

신현수, 文캠프 법률멘토로 참여
정권 첫 檢 출신 민정수석 탄생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선택한 것은 ‘친문’ 정치인을 기용해 친위 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부동산 등 다양한 이유로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려 있는 시기인 만큼 측근이나 정치인을 비서실장에 앉힌다면 오히려 더욱 여론의 주목을 받아 집권 5년 차의 원만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회복이 중요한 만큼 실물 경

대통령비서실 주요 인사

비서실장 유영민 (1951년생)	민정수석비서관 신현수 (1958년생)
· 부산 동래고 · 부산대 수학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갑 지역위원장 ·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 LG CNS 부사장	· 서울 여의도고 · 서울대 법학과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 국가정보원 기초실장 ·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 사시 2회

제를 잘 아는 유 전 장관을 기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신임 비서실장은 이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경제 관련 국정과제들의 안정적 관리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2017년 유 전 장관을 기용할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를 고려한 인선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 실장은 문 대통령과 같은 부산 출신인 데다 1951년생으로 문 대통령(1953년생)과 비슷한 연배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청와대 안팎에서 “언젠가는 민정수석을 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핵심 친문 법조인이다. 1990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된 뒤 이듬해 김앤장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관행을 처음으로 깬 사례였다.

청와대 근무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인연을 맺은 그는 2012년 대선에서는 캠프 법률 멘토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도왔다. 2017년 대선 때도 다시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공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후보에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돼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다. 이듬해인 2018년 8월 국정원 기초실장에 물러나 김앤장으로 복귀한 그는 2년여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변신해 문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자 마지막 검찰 출신이 될 전망이다. 정일환 기자 whan@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신임 비서실장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부동경안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3기’ 경제팀 살아남나 홍남기 부총리 유임 ‘술술’

“코로나발 마이너스 성장 등
정책 집행 속도 낼 인물 부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비서실장을 노영민에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교체하면서 사실상 文 정부 3기 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애초 교체가 유력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유임되면서 경제 투톱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관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나 이호승 경제수석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한 김상조 실장을 재신임한 것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중차대한 시기이고 이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내년 연초부터 집행되는 상황에서 새 인물보다는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19년 6월 21일 임명돼 코로나19정국을 고스란히 겪었다. 그만큼 코로나19 대책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또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된 상황에서 김 실장까지 바꾸면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 경질했다는 시각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아 그 사안이 끊어지거나, 공백이 생기거나, 정부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 유임으로 홍남기 부총리의 교체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달 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재임 기간이 긴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마지막 개각이 예정돼 있다. 애초에는 개각에 홍남기 부총리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김 실장의 유임으로 홍 부총리의 유임 가능성도 커졌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 골드의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37가지(아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아산화규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농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텍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김진욱 ‘첫 출근’… “1호 수사 염두에 둔 것 없어”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의 권한은 국민에게 받은 것”이라며 “어떻게 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지하철을 이용해 첫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에게 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이니 인내심을 갖고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청와대의 검증은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검증이자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부족해 공수처를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은 1999

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

그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처장, 검사, 수사관 등 다른 직원이 있다”고 반박하며 “처차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의 팀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함께 호흡을 맞출 검사와 수사관 등 공수처 구성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는 처·처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선발을 두고도 여야 간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호 수사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이첩이 요구하는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이 이첩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끊어진 ‘계층 사다리’



취업

공무원 합격률 소득 상층>하층
합격해도 ‘고시’ ‘공시’ 출신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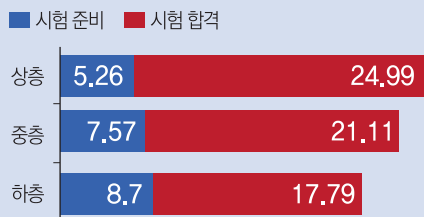
결혼

상대 찾을때 재산부터 보게돼
아버지 학력 동질혼 비율 53%

출산

자녀에 친구같은 부모 되려면
집 걱정 없이 즐길 여유 있어야

소득 계층에 따른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율과 합격률 (단위 : %)



※출처: 김도영, '대졸 청년의 공무원 시험 준비 및 합격에 나타난 계층수준과 교육성취의 효과', 2019

남승민(가명·28) 씨는 2017년 지방 행정직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 한 차례 낙방을 겪은 터라 합격 소식이 더 기뻐졌다. 고향 도청에서 2년간 일하면서 그가 느낀 건 ‘벽’이었다. 그는 “매일 같이 계층 격차를 느낀다”고 말했다. 나이가 비슷한 동료 공무원과 일할 때도 그렇다. 어떻게 공직 사회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과 7급, 9급 출신이 갈린다. 같은 일을 할 때도 상사들은 “재는 어디 출신”이라고 쏘대다. 또래 공무원 근무자(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무자)나 청원경찰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계승민 씨가 바라본 공직사회 모습이다. ‘연줄’이 더해지면 벽은 더 높아진다. 승민 씨는 “동네가 좁다 보니 몇 다리만 건너도 금세 연결고리가 나온다”며 “‘부모가 뭘 하더라’는 말이 금방 돌고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업계에서 일하는 김가영(가명·26) 씨도 취업 전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슷한 벽을 느꼈다. 당시 가영 씨는 주중엔 학교생활을, 주말엔 온종일 서서 일하느라 언제나 녹초가 됐다. 자신보다 어린 손님을 대하다 보면 박탈감까지 들었다. 가영 씨는 “나는 다리 통통 부은 채로 겨우 한 달에 50만~60만 원을 버는 데 재는 얼굴에 바르는 데만 50만 원을 쓰네”란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다.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박은수(가명·29) 씨는 “집안에 물려받은 재산이 있

으면 뭐든 시간이 단축된다”며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던 아이들은 취업이나 인턴 자리를 구할 때도 더 유리하다. 집을 살 때도 돈을 모을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입시·취업 장벽 넘어도 ‘불평등’= 90년대생이 현실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건 이들이 입시·취업 시장에서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서다.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 등 대규모 입시 제도 개편이 90년대생들이 대입을 준비할 무렵 이뤄졌다. 이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수상 실적이나 대외활동 등 스펙 관리에 목을 매야 하는 첫 세대가 됐다. 핀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김민용(가명·26) 씨는 “자기소개서에 쓸 걸 찾느라 구미에서 서울까지 캠프를 다니고 등산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도 취업은 쉽지 않았다. 90년대생(2009~2018학번)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56만 여명으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많다. 그런데 이들이 마주하는 고용 지표는 사상 최악이었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15~29세 청년은 통계작성 후 가장 많은 93만4000여명으로 조사됐다. 취업준비생 오지현 씨(가명·29)는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현 씨는 2017년 지방 국립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지만 아직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바늘구멍 취업 기회마저 계층에 따라 불공정하게 작동했다. 가장 객관적이라는 공무원 시험부터 그랬다. 2019년 한국고원대 석사과정 김도영 씨가 쓴 논문을 보면,

그때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철강회사에서 일하는 29세 안유빈(가명) 씨에게도 외환위기 당시 기억을 물었다. 유빈 씨는 씁쓸해했다. 외환위기 당시 유빈 씨 아버지는 직장을 잃은 상태였다. 유빈 씨는 “그 당시에 집을 샀으면 좋았겠지만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 됐다”며 “고등학교 때가 돼서야 겨우 내 방이 생겼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투자 성공기, ‘코로나 위기’ 투자 독려= 성수 씨와 유빈 씨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해, 영하 씨는 7세 때,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다. 90년대생은 포스트 IMF 세대다. 1997년 그해 집안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이들이 물려받는 계층 사다리 길이가 달라졌다. ‘내 집 마련’ 걱정을 일찌감치 던 성수 씨는 이미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섰다. 그는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될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첫

‘부모 찬스’ 없는 절망뿐

소득 하층 청년(하위 30%)과 상층(상위 30%) 청년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각각 8.7%, 5.28%였으나 합격률은 소득 상층 청년(24.99%)이 하층 청년(17.79%)을 앞섰다. 김 씨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능력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이상과 달리 실제 기회구조는 계층 수준과 교육 성취에 따라 계층화돼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높아진 계층 간 장벽은 90년대생의 급여와 자산에서도 드러난다. ‘2018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대학을 졸업한 1990년대생 가운데 부모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사람의 월 평균 초임은 평균 261만 원이었다. 부모 자산이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자의 초임은 그 4분의 3(월 192만 원)에 그쳤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8년 발표한 논문에서 2010~2017년 20~24세 청년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91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니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걸 의미한다.

◇결혼·출산에서도 ‘부러진 사다리’= 90년대생들은 불평등이 앞으로도 이어질까 우려한다. 미래 세대의 재생산을 위한 결혼부터 그렇다. 승민 씨는 “어떤 사람을 자연스럽게 알기 전에 집과 차부터 보게 되는 게 사실”이라며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서로 상속받을 재산이 넉넉한지 아닌지 따지게 된다”고 했다.

연세대 김성희 박사 분석을 보면, 2008~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참여한 초혼 커플 1562쌍 가운데 아버지 직업 동질

혼(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2001~2008년 64.6%에서 2009~2017년 69.5%로 상승했다. 아버지 학력 동질혼 비율도 48.0%에서 53.0%로 높아졌다. 갈수록 비슷한 가정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풍조가 짙어진다는 의미다.

90년대생들은 출산과 교육에서도 자신이 아들딸에게 사다리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 철강 회사에 다니는 안유빈(가명·29) 씨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서도 “그러려면 집 걱정 안 하고 문화생활도 종종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IT(정보통신) 스타트업업을 운영하는 정승우(가명·24) 씨도 “자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며 “이를 위해선 부모로서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200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까. 90년대생들은 고개를 젓는다. 학원 강사 양정진(가명·28) 씨는 “강남 아이들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같은 일을 놀랍지 않게 받아들인다. 반면 다른 지역 아이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억울해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방향성을 받아들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박소는 기자 gogumee@

부모님 투자 성패 따라 자식들 물려받는 ‘사다리’ 달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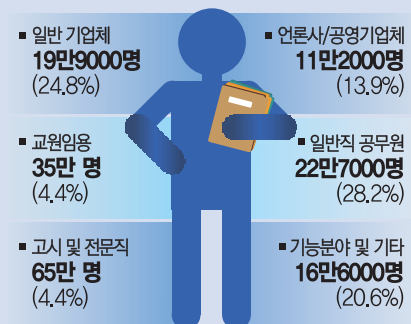
외환위기가 남긴 교훈

#.컨벤션 업체에 종사하는 29세 안성수(가명) 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23평(77㎡) 아파트의 집주인이 됐다. 외환위기 여파로 집값이 겨우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지만 성수 씨 부모님은 열 살배기 자식 앞으로 아파트를 장만해 줬다. 2억 원이 안 되던 성수 씨 아파트값은 20년 후 20억 원을 넘어섰다. 해마다 날아오는 세금이 걱정이지만 생각만으로도 든든하다.

#.취업준비생인 28세 배영하(가명) 씨의 경우 외환위기는 아쉬운 기회다. 경남 시골 학교 선생님이던 영하 씨 아버지는 경제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나라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투자를 머뭇거렸다. 끝내 투자를 포기한 아버지는

15~29세 비경제활동 청년 취업 준비 분야

■ 총 취업 준비 인구 : 80만4000명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위기때 기회 잡지 못하면

30년 지나도 격차 못좁혀

직장을 잡았던 영하 씨는 다시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외환위기로 돈을 벌었다, 기회를 놓쳤다, 직장을 잃었다는 무용담 혹은 실패담은 당시 직장 생활을 하던 부모 세대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경험은 자식 세대인 90년대생으로까지 이어진다. 위기 때 기회를 잡지 못하거나 버티기라도 못하면 30년 후까지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교훈이다. 남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풍부한 현금 동원력으로 부동산을 평가절하된 가격으로 구매해 이후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쪼개서 주식 투자하는 영하 씨는 “요즘 주변 친구들이 너모나도 투자에 뛰어드는 것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인 것 같다”며 “덕분에 (2020년) 3월 주

식이 바닥을 기었을 때 그나마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생존만으로도 ‘선망 대상’= 영하 씨 부모님처럼 큰 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은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는 생존기만으로도 90년대생에게 또 다른 선망 대상이다.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청년 사이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외환위기를 즈음해서다. 그나마 있는 사다리라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대 대기업 구조조정·해체 여파를 거치며 공시생은 몸집을 키웠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취업을 준비 중인 15~29세 청년 80여만 명 가운데 약 22만 명(28%)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이나 전문직 등 다른 모든 직군을 제쳤다.

박종화 기자 pbell@



할말 해도, 네네 해도 “원래 그래?”… 꼰대에 치여 상처만

직장생활, 우리만 힘든가요?

#1. 충남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오히라(28·가명) 씨는 직장생활 6년 동안 회사를 4번 옮겼다. 첫 번째 직장은 3년 8개월 만에 그만뒀고, 두 번째 직장은 6개월 만에, 세 번째 직장은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냈다. 네 번째 직장은 평생 다녔다 좋을 만큼 마음에 쏙 들었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돼 떠나야 했고, 다섯 번째 직장은 그러저럭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

오히라 씨는 “화장실 가는 거, 연차 쓰는 거, 외출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윗사람들의 행동이 숨막혔다. 큰 실수를 해서 혼나는 거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굳기 잡으려는 건지 작은 실수에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혼내고 화내는 일이 많아 견디기 힘들었다”고 첫 직장 퇴사 이유를 밝혔다.

이후 오히라 씨는 두 번째 직장을 구했지만, 1년 계약 기간의 절반도 못 채우고 나왔다. 첫 직장에서의 사사건건 간섭하는 상사에 질려 묵묵히 일만 했는데 돌아온 대가는 “90년생은 원래 이래요?”라는 차가운 평가였다.

꼰대를 만날 때마다 직장생활을 견디기 어려웠던 오히라 씨는 그렇게 6개월, 1개월 점점 퇴사가 빨라졌다.

#2. 4년 차 농업직 공무원 임시원(29·가명) 씨는 하고 싶은 말 답아두지 않고 쏟아내는 그야말로 ‘90년대생’이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오라는 선배한테 “선배는 일찍 와서 주무시잖아요. 초과수당 찍으려고 일찍 오는 거 아니에요?”라며 당돌하게 말한다.

그런 시원 씨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지만, 그가 처음부터 당돌한 캐릭터였던 것은 아니다. 시원 씨는 공무원이 되기 전 다녔던 직장에서 사무실 내에서 실내화를 신었다는 이유로 한 선배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그의 험담으로 다른 선배까지 합세해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는 ‘꼰대 문화’를 경험했다. 그 뒤 퇴사를 결심했고, 1년 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했다. 아무리 보수적인 공직 사회라고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처럼 답답한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첫 직장에서 감히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을 지금은 가뿐히 해낸다. 시원 씨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전 직장은 보수적인 문화에다 같은 사람하고 평생 일해야 했다면 지금은 수평적인 분위기다”고 말했다.

#3. 제2금융권에서 일하는 6년 차 직장인 강혜란(28·가명) 씨는 입사 초엔 선배한테 도움 것 없느냐며 먼저 묻고, 선배가 퇴근하기 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엄두도 못 냈다고 한다. 하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고, 한 일에 비해 보상도 못 받는단 생각에 일에 의욕을 잃었다. 제 할 일만 하고 퇴근하는 직장인으로 변했다지만, 자기 일을 떠넘기거나 출근 시간보다 일찍 오라는 상사의 말에 군말 없이 ‘네’라고 답한다.

혜란 씨는 “어느 날은 차장이 출근 시간에 맞춰 오는 걸 지적하며 10분 일찍 오라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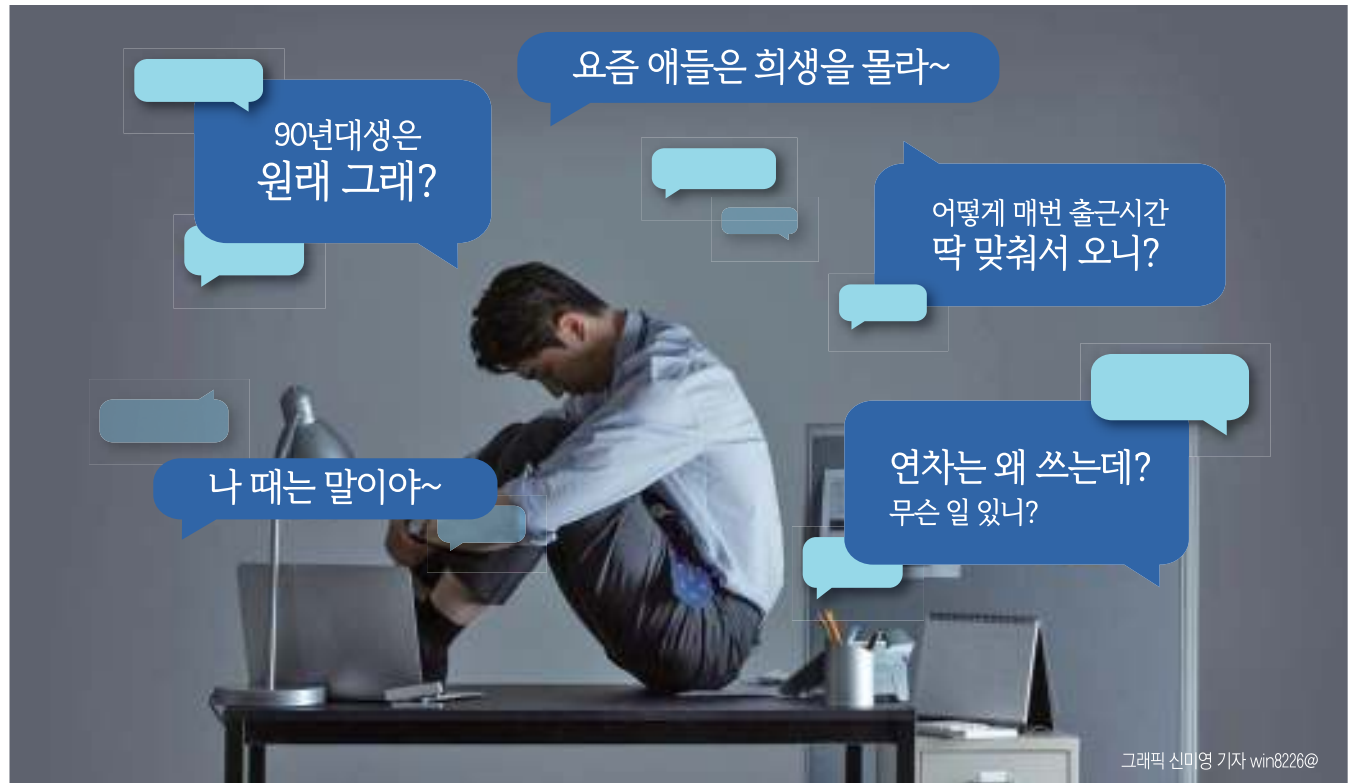
더라. 짜증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내가 2분 늦게 도착했다. 그 래도 출근 시간 전에 온 건데 차장이 막 화를 내더라. 한 번은 그 얘기를 한 차장이 좀 늦었는데 ‘바지가 떨어져서 늦었다’라며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들어오더라”고 말했다.

앞에선 못하고 뒤에서 싫은 소리를 하는 혜란 씨는 “몇십 년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만의 문화나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하나? 다들 그렇게 꼰대의 말에 아무 말도 못 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혜란 씨는 우리 세대를 할 말 다하는 세대로 규정된 현실에 ‘NO’를 외치며 억울해한다.



이미지투데이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휴가 내려면 사생활 캐묻고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내 ‘꼰대’ ‘라떼’ 겪고 의욕상실 희생 강요하는 구조 힘들어

◇“희생해도 보상 없으니 가만히 있죠” =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특이한 신세대.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와 산업은 그리고 정치는 ‘90년대생 이해하기’를 숙제처럼 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주요 소비층으로 떠올랐으며 기성 정치 문법을 거부하는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책이 꾸준히 출간됐고, 베스트 셀러에 올랐다.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90년대생은 충성심 없고, 쉽게 포기하고, 고집이 세고, 이익만 챙기는, 이해하려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다.

90년대생은 회사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대가 없는 노동은 하고 싶지 않다.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 생각의 차이일 뿐인데 사회와 기성세대는 이런 모습을 ‘충성심 없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30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니어 공무원은 일한 만큼의 보상(44.6%)과 성취감(39.4%)을 중요시하는 반면 시니어는 성취감(44%)과 소속감(35.1%)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고, 일한 만큼의 보상(34.9%)은 그다음으로 중시했다. 90년대생 직장인 시원 씨와 혜란 씨의 생각도 같았다.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면 그만큼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보상 없는 희생’을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혜란 씨는 “보상을 확실히 해주면 일을 더 하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회사는 말 그대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

다. 초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일도 도우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끼고 연차가 쌓이면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올라야 하는데 제자리다. 위에 쌓인 인력들 때문에 승진이 막혀 있으니까 월급도 안 오른다. 일이 하기 싫어지고 막 내 뒀만 하게 된다. 보상에 없는데 다른 사람 일 도와 줬잖아 ‘시키면 다 한다’ 이런 이미지만만 들어져 나한테 일이 몰린다”고 말했다.

시원 씨는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희생한다고 했다. “나는 업무시간을 넘겨서 일할 때가 많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초과근무 수당이 있기 때문이고,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난 회사가 아닌 내 미래를 위해 희생한다. 우리는 실적을 매겨서 보너스를 주니까 위에서 신규 사원을 맡으라고 하면 기본 좋게 할 수 있다. 이게 잘 되면 또 성과를 만드는 거고 그게 보너스, 승진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젊은 꼰대 안 되려 침묵” = 90년대생도 어느덧 선배가 됐다. 그들이 바라보는 후배의 모습은 어떨까. 90년대생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태도가 후배들과 사뭇 다르다고 입을 모으지만, “라떼”를 신경 쓰거나 굳이 지적하지 않는다. 그들이 겪었던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애쓴다.

혜란 씨는 “요즘 애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새로 들어온 애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느낌이다. 휴가 전날 다녀오겠다고 한마디라도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서 나중에 ‘아 연차구나’ 알게 된다. 결재만 올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사무실 청소를 나눠서 하는데 선배들이 먼저 시작하면 우리는 좌불안석이라 거드는데 후배들은 시킬 때까지 안 하더라”고 말했다. 시

원 씨 역시 “연차 관련해서 나도 동의한다. 휴가 가기 전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 간단히 하고 가면 좋은데 전혀 안 한다”고 말했다.

◇“다시 직장생활 한다면 할 말 하겠다” = 이번 생이 우리 모두에게 처음이듯, 누구에게나 서툴고 어색했던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다. 90년대생도 그렇다. 어디까지가 당당하고 또 어디까지가 되바라진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혜란 씨는 “입사 후 처음 설정한 캐릭터가 중요한 거 같다. 나는 회사에서 아무 말도 못 하는 애, 시키면 그냥 다 하는 애다. 처음엔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회사 분위기를 모르니까 혼나면 혼나는 대로 기죽어 있었고, 잘해 주면 잘해 주는 대로 웃었다. 그런 내가 갑자기 내가 할 말 다하는 캐릭터로 바뀌는 건 진짜 웃긴 일이다. 그렇지만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당당하고, 거절도 좀 잘 하는 그런 캐릭터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히라 씨는 미움받을 용기를 배우겠다고 말했다. “처음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 이제는 누구 하나쯤은 날 미워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나는 속에 있는 말 거리낌 없이 다하는 그런 캐릭터까지는 아니어도 거절만 잘 하는 사람으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원 씨는 어떨까. 그는 “공직 사회가 너무 좁다 보니 모두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늘 있다.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할 말 다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버릇없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당당하다고 봐줘서 그런 거 같다. 난 지금 캐릭터 유지하면서 내 미래,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한줄기 희망을 노래하다

▶1면서 계속

유진 씨가 대학 입학 앞둔 2010년, ‘카카오톡’이 생겼다. 대학 새내기 때만 해도 친구들과의 소통 창구였던 싸이월드나 ‘네이트온’은 반년도 안 된 2학기가 되기 전 멸종위기에 몰렸다.

이제 글자 수를 꼭꼭 눌러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다.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나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같이 대단한 사람들만 갖는 줄 알았던 스마트폰을 이제 모든 사람이 쥐고 다닌다. 요 기특한

것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았는지 유진 씨는 아득하다.

2011년 대학 입학 당시만 해도 새로 만난 친구들은 나이와 사는 동네는 물론 무슨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는지를 묻는 게 일상다반사였다. 정시로 합격한 친구들은 자기들은 공부로만 대학에 왔다고 으스스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는 오랫동안 그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졌다. 1년에 800만 원씩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민망했던 유진 씨는 다행스러웠다. 새내기 때 ‘반값 등록금’ 시위에 나간 보

람이 있었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다. 부모님 소득과 재산으로 장학금 액수가 정해지는 탓에 집안 형편이 드러나는 일도 빈번했다. “넌 장학금 얼마 받았니”라고 묻는 친구들이 “너희 집은 얼마만큼 사니”하고 캐는 것 같았다.

2014년 가을. 벌써 졸업학기가 됐다. 졸업요건을 모두 채워 언제 졸업해도 이상할 리 없는 유진 씨는 졸업할지 말지 한참 고민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졸업예정자를 선호한다고 하니 ‘졸업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유진 씨가 다니는 학교는 졸업을 유예하기 위해선 일부 학점을 수강해야 하고,

등록금도 일부 내야 한다. 유진 씨는 그 돈이 아까워 결국 졸업을 택했다.

졸업 후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초조한 마음에 인턴을 지원했다. 인턴일 뿐인데 경쟁률이 치열하다. 서류 탈락에 면접 탈락까지 술한 광탈을 거친 후에야 겨우 얻은 인턴 자리지만, 받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밥값과 교통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 그래도 졸업 후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닌다.

2016년 봄. 취업준비 기간이 2년 넘어간다. 졸업 전 따췌던 토익 등 각종 스펙

이 만료되니 마음이 급해졌다. 처음엔 가고 싶은 회사와 원하는 직군을 골라 지원했지만, 점점 회사와 직군의 폭이 넓어진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구인·구직 사이트를 훑어보고 지원할 회사의 정보를 찾아 본다.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용돈 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다녀온다.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바탕이다. 자리에 누워 유재석-이적이 부른 ‘말하는 대로’를 듣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날이 오긴 할까 상상한다. 금세 배가텅이 찢어 든다.

“닥치는 대로 스펙 쌓아 취업... ‘이 길이 맞나?’ 허탈”

퇴사를 꿈꾸는 이유

어른들 조언대로 대학 선택
꿈보다 현실 생각하며 취업
“회사는 나를 책임지지 않아”
‘진짜 잘하는 게 뭘까’ 고민



2018년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던 박해나(가명·28) 씨가 아일랜드 더블린 피닉스 파크에 서 있다.

박해나(가명·28) 씨가 3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건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미래에 ‘퇴사’와 ‘경력 단절’을 안고 가는 건 불확실성을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영 도태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여태껏 부모의 뜻대로 성실히 공부했고, 어른들의 조언대로 대학과 전공을 선택했다. 대학시절엔 해외 인턴과 각종 대외활동으로 스펙을 쌓았다. 졸업 후 공백이 길어지면 취업이 어려워질 거란 생각에 PD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닥치는 대로 원서를 넣었다. 또래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했고 앞서가는 느낌이었지만, 직장에서 연차가 쌓일수록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 90년대생 = 취업 후 진로를 고민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모습은 해나 씨만의 일이 아니다. 입시와 취업에서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쌓으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좌절하는 90년대생이지만, 입사한 지 1년 이내 퇴사하는 신입사원 비율은 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3월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356개사 가운데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6%였다. 응답 기업의 80.9%가 과거 세대보다 밀레니얼 세대의 조기 퇴사 비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조기 퇴사자들은 입사 후 평균 5개월 내에 회사를 떠났다. 그들이 밝힌 퇴사 사유는 ‘개인의 만족을 가장 중시해서’ (68.8%, 복수응답),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44.1%),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해서’ (33.3%), ‘잡을성이 부족해서’ (33.3%),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18.8%), ‘이전 세대보다 솔직해서’ (18.3%) 등이었다.

IT 서비스 업계에서 창작자 지원 업무를 했던 해나 씨는 직장생활 4년 차에 ‘지금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아닌지’ 등 일의 전문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관심 있고 좋아했던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에 다시 입학할까 잠시 생각했지만, 시간과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 당장 안정감을 주는 회사를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며 내가 뭘 좋아하고,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었다. 그렇게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했고, 2018년 12월 아일랜드에서의 삶이 시작됐다.

해나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현지 게임 회사에 취직했다. ‘생존’에 힘쓰다 보니 정작 진로에 대한 고민은 사라졌고, 여기서 평생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해나 씨는 “일 외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주위 사람의 심기를 살피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곳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기 전 현지 회사에 취업해 정착하고 싶었지만 취업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찾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2019년 12월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해나 씨는 재취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해나 씨가 최종 합격한 곳은 이전 직장보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였고, 업무 역시 연장선이다. 해나 씨는 “업종과 상관없이 내 분야로 먹고살 수 있는 일을 찾고 싶

어서 알아봤는데 결국 붙은 곳은 첫 직장 이랑 똑같은 IT 서비스 업체이고 창작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래서 첫 직장이 중요하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취업을 통해 회사와 일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 나는 내 일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력을 인정받아 재취업을 하니까 ‘이쪽 일이 전문성 없는 건 아니겠구나, 이쪽으로 경력을 쌓아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했다.

이제 해나 씨의 진로 고민은 해소됐을까. 그는 다시 먼 미래를 그리고 있다. ‘40세에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은 여전히 있다. 재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생각은 못 했지만, 내가 관심 있어 했던 미술이나 디자인 쪽을 배워서 부업을 준비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회사는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 회사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90년대생은 1997년 외환위기를 어렵게 기억하지만, 당시 부모 세대가 겪은 좌절을 술하게 듣고 읽으며 자랐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 그 중심에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체감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오로티 전화의 기능만 하던 때를 분명히 기억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을 접했고 또 익숙해졌다. 세이클럽, 버디버디,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그 시대주

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굵직한 흥과 망을 경험하기도 했다. 내가 몸담은 회사가, 내 업무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금세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체감하며 자라온 세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불안감은 강한 확신이 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8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8개월 동안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15.1%로, 2개월 전인 6월(12.9%)보다 증가했다.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종사자 이슬비(가명, 28) 씨는 우울한 기분을 떨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다른 곳에 취업했다가 여러 번 낙방 끝에 원하던 직업을 갖게 됐지만, 갑자기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엄청난 우울함이 느껴지고 자존감이 낮아졌다”며 “가장 힘든 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지, 돌아갈 수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너무 불안하니까 동료 중에는 다른 직업을 찾는 사람도 많다”고 밝혔다. 슬비 씨는 “휴직 기간에 공기업에 준비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딱히 없으니까 생각처럼 잘 안 된다. 붕 떠 있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90년대생은 이 모든 현실이 한마디로 언짢다. 해나 씨는 “90년대생은 격동의 시대를 사는 것 같다. 다들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공기업에 꿈꾸는 걸 비난만 할 순 없다. 그만큼 미래가 불안정하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걸 찾는 거다. 어릴 때는 공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대학에 갔더니 스펙을 쌓아야 취업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스펙 쌓고 취업했다. 그런데 30세에 다시 진로를 고민하고 정년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너무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21. 01 VOL.73

New Senior Life

COVER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 PART1. 2021년 시니어가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면역력 백신' 만들기
PART3. PI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슬기로운 연금생활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55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퇴직금은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에는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한 번의 인생, 모험으로 답하다
태권도인 조명신



책임감 있는 자유 누리며, 계절의 나이를 살다
가수 겸 정신과 의사 김창기



'낙수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정치인의 삶 살아갈 것'
변호사 원영섭

재미있는 성 인문학 사시장춘!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따라서 유행이다. 그런데 성만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야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성'이라 표기하는데 어찌 이렇게 적합한 표현을 찾았는지 놀라기까지 하다. 성은 그 사람의 본성을 뜻한다. '배정원의 성 인문학'은 역사, 예술, 사회 등



라떼, 그때는 그랬지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영웅담이나 에피소드, 시간을 되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제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50+ 워라벨
90년대생과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아무튼 약
약사가 알려주는
약국 사용설명서

월급만으로 집 장만 못해... 한 株 두 株 '디딤돌' 놓지요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직장인부터 취준생까지 '재테크 신드롬'

소득보다 빠른 집값 상승률... "한 푼 안 쓰고 16년 모아야"

10명 중 6명 "집 사려고 주식"...키움증권 20대 계좌 4배 ↑

전자 회사에 다니는 최성수(27·가명) 씨는 생활비와 대출금을 뺀 월급 대부분을 주식에 몰아넣고 있다. 그는 지난해 봄 주식을 시작해 1000만 원을 증권 계좌에 넣었다. 1년 차 직장인이 성수 씨 자산의 90%다.

취업 준비생 배영하(28·가명) 씨도 아쉬운 돈을 쪼개 주식을 시작했다. 그는 전직장을 그만두며 받은 돈과 친척 일을 도와주며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한 주, 두 주 쌓고 있다.

◇월급으로 집 장만 꿈도 못 꿔 = 요즘 90년대생은 자산 불리기에 한참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2019년 20대는 이 회사에서 증권 계좌 10만7830개를 개설했지만 지난해엔 12월 초까지만 20대 계좌 46만6420개가 새로 생겼다. 종자돈이 부족한 이들은 일찌감치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

월 20대 이하가 사들인 주택은 4만6438채. 전년 같은 기간(2만5982채)보다 1.8배 늘었다.

이투데이가 만난 90년대생 투자자들은 두 투자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성수 씨는 "집이 있어야 기본적인 경제생활이 안정될 텐데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면 영원히 못 살 판"이라며 "주식으로 집을 사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영하 씨도 "나처럼 고양이를 키우면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다"며 "조금씩이라도 집을 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미래에셋대우가 2030세대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1%가 재무적 목표로 '주택 구매를 위한 재원 마련'을 꼽았다.

최근 뛰는 집값을 보면 이들이 주식을 디딤돌 삼아서라도 집을 사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16년만 해도 약 12년이었지만 지난해 16년으로 늘었다. 20대가 전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2년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다면 이젠

그 기간이 4년 더 늘었다는 뜻이다. 소득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서다.

◇속상한 무주택자 '부 티켓 만들자' = 마음이 급하니 '영끌(영혼까지 끌어낸다)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같은 무리수가 따른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30세 미만 투자자의 주식 투자 신용 융자 잔고는 2019년 말 1600억 원에서 지난해 9월 420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건산연 연구에서도 모든 연령대 중 2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오르면 기타 대출 위주로 부실화가 일어날 수 있어 세심한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90년대생 안에서도 자산 격차가 생기면서 위화감도 커진다. 유동업체에서 일하는 무주택자 최민기(28·가명) 씨는 "안 그래도 집을 못 사 고민이 많은데 나이가 비슷한 누가 집을 사서 열마를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며 "부동산 에티켓 같은 걸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유주택자인 흥보업체 직원 최준혁(28·가명) 씨는 "요새 집값이 몇 천만 원 올라 기분이 좋았는데 학교 선배가 10억 원 가까이 벌었다는 얘길 듣고 빈정 상했다"고 털어놨다.

서지연 기자 sjy@·박종화 기자 pbell@

반년 전 경기도 갭투자한 민석씨 규제 쏟아져도 '비빌 언덕' 든든

20대 부린이, 집주인 되기까지
"이대론 못 산다" 서울밖 눈 돌려
집값 30% 마련해 규제 직전 계약
"세입자님" 덕에 집 걱정 덜었죠"

28세 강민석(가명) 씨는 일생을 '부린이(부동산과 어린이의 합성어·부동산에 어두운 사람)'로 살았다. 청약이 뭔지, 재건축·재개발이 어떻게 다른지도 몰랐다. '대한민국에 내 몸 하나 누울 데가 없겠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니 당장은 집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월급도 받는 대로 예금통장에 그대로 쌓아놔다. 민석 씨 주변 친구 가운데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드물었다.

친구들이 먼저 바뀌었다. 이대로는 집을 못 산다며 청약 전략을 세우고 수도권 지방공공임장(부동산 투자를 위한 현장조사)을 다니기 시작했다. 민석 씨에게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또래를 모아스터디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친구들 말을 들으니 민석 씨도 불안했다. 동네 아파트값부터 알아봤다. 낯다리 아파트가 만만하지 않았다. 민석 씨 월급으로는 동네 아파트나 강남 펜트하우스나 까마득하긴 매일반이었다. '난 서울에 집을 못 살 거야.' 전에도 막연히는 생각했지만 이젠 집값과 월급을 따져볼 수 있게 됐다. '난 서울에 집을 못 사는구나.' 확신이 들었다.

사람 마음은 간사해서 '내 집 마련'을 단념하긴 어려웠다. 민석 씨는 가진 자금 안에서 비밀 언덕을 찾고 싶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뒤진 끝에 전세가을(매매가와 전셋값 차이 비율)이 높은 경기도 구도심을 찾았다.

전세를 끼면 매매 호가의 30%만 있으

면 집을 살 수 있었다. 20%는 그간 모아둔 월급으로 내고 10%는 어머니께 빌렸다. 갭투자인지 갭기인지 마음이 쓰였지만 당장 민석 씨 통장으로 집을 마련하려면 별수가 없었다. 서울에선 멀긴 해도 역세권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여차하면 민석 씨가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민석 씨보다 열 살 정도 많은 전 주인은 4주택자였다. 정부 규제를 피해 집을 급매하게 됐다. 세금을 따져보면 밀지고 집을 팔았다. "손해 보셔서 어떡해요?" 민석 씨 물음에 그는 "다른 집에서 많이 벌어서 괜찮아요"라고 답했다. 그 플렉스(Flex·부를 과시하는 행동)에 민석 씨에겐 롤모델이 한 명 더 생겼다.

지난해 6월 계약을 맺고 8월 잔금까지 치렀다. 등기상으론 집주인이 됐다. 민석 씨 돈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은 사실상 '세입자님' 집이지만 비밀 언덕이 생겨 든든했다. 잔금일을 기다리는 사이 정부는 민석 씨 집이 있는 동네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민석 씨는 열흘 차이로 규제를 피했다. 그 열흘 사이에 세금 수천만 원이 갈랐다.

민석 씨는 집을 산 이후 세입자를 새로 맞았다. 이전 세입자가 갑자기 퇴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보다 전셋값을 높게 불렀지만 물건을 옮긴 지 한나절 만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다. 전세난 덕인지 탓인지 모를 일이었다.

민석 씨가 집을 산 지 반년이 지났다. 그 사이 정부는 규제를 6번 더 내놔지만,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민석 씨 투자 포트폴리오 중 수익률이 가장 높다. 올려받은 전셋값으로 투자한 주식 시장에서도 잔재미를 보고 있다. 민석 씨는 주식이 무럭무럭 불어 전셋값 돌려줄 걱정 없이 '내 집'에 들어갈 날을 꿈꾼다.

박종화 기자 pbell@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능력티켓 한장으로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현실은 학자금도 못 갚아... 채무조정 신청 30% 급증

3년차 직장인 박지민 씨 투자 시간표

오전 6시 | 주식 유료 단톡방 출석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오전 8시 55분 | 단톡방 유망 종목 추천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 환율.....

오늘의 추천 종목은 L사

리더님만 믿어요

회사 점심시간 | 투자 상담 겸 집중 매매

지금 들어가긴 늦었을까요 ㅠ

전 괜히 판 거 같아요

※동료와 상담 중에도 주가 동향 필수 체크

오후 3시 30분 | 오늘의 투자 성적표 인증

<증권계좌 캡처>

<증권계좌 캡처>

축하해요 ㅎㅎㅎ

오후 9시 30분 | 주식 유튜브 시청하며 자습

나도 좋은날 올까.....

출처: 게티 이미지뱅크

20대 '부동산 영끌'에 박탈감 소액 투자 찾다보니 주식 빚투 2금융권 마통 절반 이상 차지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지난해 2배”, “20대 휩쓸고 간 ‘영끌’ 열풍”. 서울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김주연(29·가명) 씨는 20대가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로 집을 산다는 이 같은 제목의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우울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대기업’에 들어가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2000만 원 남짓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면 생활비 쓰기도 빠듯하다. 주연 씨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으면 부모 세대보다 잘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면서 “이제 평생 월급으로 돈 모아봤자 빚내서 아파트 산 친구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주연 씨는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왜 남들처럼 ‘영끌’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여력이 없었다”고 항변한다. 학자금

대출도 남았는데 어떻게 또 빚을 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다. 주연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의 선택으로 또래 20대들과 출발선이 달라졌다”며 “20대 집주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양극화 심화·박탈감 느끼는 20대 = 학자금 대출 갚기도 바쁜 20대 청년들은 ‘영끌’ 현상을 놓고 ‘남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마이너스 통장’이나 2금융권 대출을 받는 20대가 늘어나는 추세다. 기존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닥쳐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6195명으로 2015년(2만7647명)에 비해 1.7배나 증가했다. 연체액 역시 2783억 원으로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나빠져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이

용자 중 20대가 절반이 넘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2015년 95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2455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20대 파산 신청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3801명→4만5490명) 감소했지만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은 1.2배(691명→833명) 증가했다.

◇미래 불안한 20대 빚 내서 투자 = 주연 씨는 지난해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서다. 여윌돈이 없었던 주연 씨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그는 “부동산에 투자할 돈은 없었고,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주식 시장뿐이었다”며 “주변에서도 빚내서 투자해도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연 씨와 같은 20대 ‘빚투족’이 급증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윤두원 의원실이 확보한 증권사 6곳(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키움

증권)의 신용공여잔액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119억 원이던 20대의 신용공여잔액은 올해 6월 말 7243억 원으로 13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39.4%)와 40대(22.4%), 50대(15.1%)보다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신용공여잔액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총액이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족’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직면한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자산이 부족한 20대들에게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 등 기존 투자처는 문턱이 높은 장벽이다. 주식 투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 ‘빚투 현상’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빠르고 투자에 공격적인 90년대생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층이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 없다”는 식의 유혹과 군중 심리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연 기자 sjy@·박종화 기자 pbell@

“리더님만 믿어요” 월 30만원 주식방 보며 출근 ...점심은 오롯이 ‘매매’

사회 초년생 주린이의 하루 개장 5분 전 ‘자칭’ 전문가 추천 취침전 수익률 보며 ‘좋은날’ 꿈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아침 6시. 주식 리딩방(종목 추천 단체 대화방) 멤버들의 인사가 아침을 깨운다. 이곳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유료 주식 리딩방. 짧은 시간 안에 주식시장을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박지민(30·가명) 씨는 월 30만 원의 소규모 리딩방에 가입했다. 월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유료 리딩방도 있었지만, 사회초년생인 지민 씨한테는 부담되는 금액이었다.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 뉴욕 증시, 유

가, 금, 역외 환율...’ 오전에 살펴봐야 할 지표가 쉴 새 없이 올라온다. 출근길 지민 씨는 단톡방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8시 55분. 증시 개장을 5분 앞둔 채팅방에선 ‘자칭’ 전문가들이 종목을 추천해준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L사. 리더는 그럴싸한 근거를 들어 매수가를 정해줬다. “리더님만 믿는다”는 회원들의 답글이 쉴 새 없이 이어진다.

지민 씨는 올해로 3년 차 직장인이다. 지민 씨가 주식을 시작한 건 올해 3월, 학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했을 때다. 부의 대물림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지민 씨는 대학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졸업 후에도 1000만 원가량의 대출이 남아 있었다. 이제야 오롯이 저축할 수 있게 된 지민

씨는 미래를 계산해봤다. 남들은 잘만 하는 것 같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 최소 단위가 5억 원인 서울 아파트값은 월급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는 아무리 저축해봤자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지민 씨의 하루는 주식으로 시작해 주식으로 끝난다. 점심시간에는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옆 부서 선배에게 커피를 사며 조언을 얻는다. 리딩방에 의지하다 수천만 원 손실을 본 후배 얘기, 바이오 종목에 몰빵해서 수익을 본 얘기, 조금해하지 말라는 선배의 조언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답답 중에도 손에서 휴대폰은 놓지 않는다. 바쁜 업무 탓에 매수·매도할 타이밍이 점심시간밖에 없는 탓이다.

장이 끝나는 3시 반. 리딩방에는 그 날

의 수익을 인증하는 증권계좌 캡처 사진이 올라온다. 아침에 찍어온 종목은 리더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장을 마쳤다. 수익을 본 회원들에게는 “축하한다”는 답글이 이어진다. 종목을 매수하지 않은 지민 씨는 후회마심이다.

야근까지 마친 9시가 넘는 시간. 저녁을 먹고 곧바로 주식 유튜브를 시청한다. 리딩방 리더에 의존하지 않고 주식투자 고수가 되는 게 지민 씨의 목표다. 고된 업무로 눈꺼풀이 무겁지만 저조한 수익률로 마음은 더 무겁다. 하지만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 하루빨리 종갓돈을 마련해 부동산투자까지 도전해야 한다.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는데,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진다. 지민 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서지연 기자 sjy@

굿네이버스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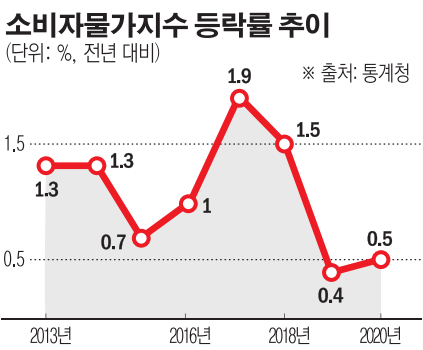


희망 품고 신축년 비상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생존을 위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 신축년(辛丑年)에는 코로나19 종식으로 하늘길이 열리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 한 항공기가 경자년(庚子年)의 마지막 일출과 함께 함께 비상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물가상승률 2년째 0%대 농축수산물·집세는 급등

작년 물가상승률 0.5% 그쳐
외식물가 20년 만에 최저
유가 하락에 석유류 7.3% ↓
“올 내수 회복, 상승폭 확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로 전년(0.4%)과 비교해 0.1%포인트(P) 상승에 그쳤다. 농축수산물과 집세는 크게 올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정부의 정책지원이 물가상승률을 제한했다. 12월 한 달만 보면 물가상승률은 3개월 연속 0%대였지만 농산물과 집세가 올라 체감물가와 괴리되는 모습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0.5% 상승해 2019년 0.4%에 이어 2년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이는 물가 집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농축수산물(-1.7%→6.7%), 집세(-0.1%→0.2%)가 크게 올랐으나 코로나19로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가 1.2% 상승에 그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7.3%나 감소하면서 0.1%P 상승에 그쳤다. 개인서비스가 1.2% 상승한 것은 2012년 1.1% 상승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식(0.8%)은 2000년(0.8%)과 같은 수준이다.



안현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물가 0.8% 상승에 그쳤고 외식 외에도 불링장 이용료, 피시방 이용과 같은 개인서비스 상승폭도 1.5%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부터 교육과 통신비 등에 정부 정책 지원이 계속되면서 공공서비스가 -1.9%로 2019년 -0.5%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2월만 보면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10월 0.1%를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0%대 저물가를 나타냈다. 계절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0.9%였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물가도 0.5%로 낮았다. 구매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만 집계한 생활물가는 0.1% 하락했다. 단 식품은 3.4% 상승했다.

신선식품은 10.0%로 크게 올랐다. 신선어개 5.6%, 신선채소는 0.2% 상승했고 신선과실은 24.3% 올라 전월(25.1%)에 이어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다. 특히 사과가 43.1% 급등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6.2% 상승했고 기타상품 및 서비스(2.0%), 보건(1.3%), 음식 및 숙박(1.1%) 등이 전체 물가보다 높았다. 교통은 -3.7%로 가장 낮았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0.7% 상승에 그쳤으나 농축수산물은 9.7%로 높았다. 돼지고기 16.1%, 국산 쇠고기 10.7%, 쌀 11.5%, 고춧가루 32.6%, 양파 66.6%, 마늘 38.2%로 크게 올랐다. 공업제품은 석유류가 12.6% 하락하면서 -0.9%를 기록했다. 전기·수도·가스도 4.1% 하락했다. 집세는 0.7%로 올랐다. 이는 2018년 4월(0.8%)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다. 개인서비스는 1.3% 상승했고 공공서비스는 2.0% 하락했다. 도시가스(-10.3%), 지역난방비(-2.6%), 고등학교납부금(-93.3%), 학교급식비(-51.3%) 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점진적 내수회복, 정책적 하방압력의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금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상반기 에너지 공기업 수장 임기 줄줄이 만료 대거 물갈이나, 연임이나 주목

한전·한수원 등 14곳에 달해
정책 이해 높은 인사 중용될듯
文정부 5년차, 교체 적을 수도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수장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이미 임기가 만료한 공공기관을 포함해 14곳에 달한다. 에너지 공공기관장 공모의 큰 장이 선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인 만큼 정책 일관성과 잔여 임기를 고려할 때 물갈이 폭이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에 따르면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을 포함해 4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14곳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4월에 3년 임기가 끝난다.

한전의 5개 발전회사 중 박형구 중부발전, 박일준 동서발전, 유항열 남동발전 사장은 모두 2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김병숙 서부발전,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은 3월 7일까지가 각각 공석 임기다.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박성철 한전KDN 사장은 2월 임기가 마무리되고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 역시 3월 공석 임기가 끝난다.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상봉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임기는 이미 지난달 6일 끝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5월 김영민 전 사장의 면직으로 2년 반 넘게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서 정지권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종 선임은 무산됐다. 최근 재차 신임 사장 모집을 공모,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심은 이들 기관장이 연임될지 새로운 수장으로 교체될지에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 임기		
기관명	기관장명	임기 종료일
한국전력	김종갑	2021년 4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2021년 4월 4일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2021년 2월 12일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2021년 2월 12일
한국남동발전	유항열	2021년 2월 12일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2021년 3월 7일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2021년 3월 7일
한국전력기술	이배수	2021년 2월 12일
한국전력거래소	조영탁	2021년 2월 12일
한전KDN	박성철	2021년 2월 12일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2021년 3월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2020년 12월 6일
한전원자력연료	정상봉	2020년 12월 6일
한국광물자원공사	-	2018년 5월 이후 공석

※출처: 알리오

르면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은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사가 예상된다.

다만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 등 골치 아픈 부분도 많고 과거 자원 비리 수사 등으로 인기가 다소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단행,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수원의 경우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건설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 처리 문제도 시급하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수년째 경영 해법을 못 찾고 부채에 눌러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일각에선 현재 수장들의 연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들은 임기와 무관하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관행처럼 돼 왔기 때문에 각 기관의 신임 사장 임기도 1년 남짓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 사장을 임명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제네시스 G80 ‘2020년 가장 안전한 차’

충돌·보행자·사고 예방 ‘1등급’

제네시스 G80<사진>이 지난해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출시된 기아 K5, 쏘렌토, 카니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현대 아반떼, 제네시스 G80, GV80, 르노 삼성 XM3 등 국산 8개 차종, 르노 캡처, 벤츠 A220, 아우디 Q7 등 수입 3개 차종을 대상으로 안전도 평가를 한 결과 제네시스 G8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판매량이 많은 자동차도 선정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네시스 G80은 중·대형 세단 분야에서 1등급 차량 중 종합등급 점수가 가장 높았다. 애초 중형SUV, 대형SUV 분야도 우수차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고점수를 받은 트레일블레이저(중형SUV), GV80(대형 SUV)이 리콜내역이 있어 제외했다.

우수차로 선정된 G80은 각 분야에서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보행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 충돌감지 시 후드(보닛)를



들어 올려 보행자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액티브후드)를 장착했고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에서 지능형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제외한 모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했다.

3개 안전성 분야(충돌·보행자·사고 예방) 전 항목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대부분 1등급이었고 아우디 Q7만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충돌평가 시 충격량이 인체 상해 상한 한계를 초과할 경우 0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우디 Q7이 뒷좌석 여성 인체모형 머리의 상해 기준 값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전기차도 평가 차종으로 선정, 평가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처벌법, 5일 논의 재개

공무원 처벌 조항 다시 넣기로
정의당, 제정 때까지 단식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결국 해를 넘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5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에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청원으로 올라온 내용 등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서 시간을 지체한 여야는 이날도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전주해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원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법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법 조항 문구 하나마다 상세하게 논의를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합의를 이룬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에서 빠졌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를 다시 한번 강력주장해서 되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는 중대재해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여야는 5일 소위를 열어 나머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생각보다 속도가 더딘데 논쟁이 많은 부분은 정리가 됐기에 5일에는 속도가 날 것”이라며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등 유가족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1일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찾아 “빈 국회에서 외로운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 유가족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면 29일 동안 농성을 하는 셈이다.

박준상 기자 jooonoon@

가슴 뛰는 순간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니까

인생에 든든한 보험이 필요한 순간마다 늘 당신 곁을 지켜온 한화생명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신의 활기찬 인생이 이어지도록
한화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까지 부담없이
LIFEPLUS 어른이보험(무)

치아관리도 놓칠 수 없으니
한화생명 스마일 치아보험(갱신형)(무)

중대 질병까지 보장해주는
한화생명 실속플러스 GI보험(무)

가입 문턱은 낮추고 가입 한도는 확대한
한화생명 간편가입 노후안심 치매보험(무)

FINISH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치매보험

을 검색해보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아보장 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중대질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銀 돈풀기’에 글로벌 시총 1년새 15兆 달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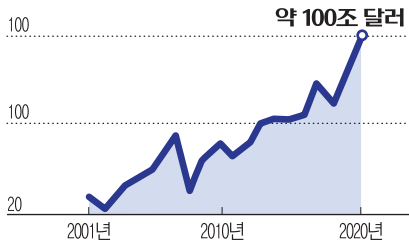
경기부양 위해 금리인하·국채매입
막대한 유동성, 글로벌 증시 유입
최대 호황 속 실물경제 회복 관전

지난 한 해 전 세계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도 고공행진을 했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상장사 시가총액은 1년간 약 15조 달러(약 1경6275조 원) 늘어나 100조 달러를 넘었다.

뉴욕증시 S&P500지수는 지난해 15% 넘게 상승했다. S&P500과 다우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 등 미국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 3월만 해도 연일 폭락하며 11년 만의 강세장이 끝났는데 이후 극적으로 반등해서 한 해를 기

글로벌 상장사 시가총액 추이
(단위 : 조 달러) ※출처: 니혼게이지아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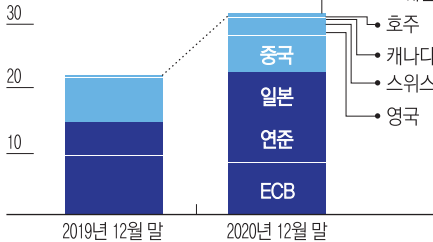


분 좋게 마무리한 것이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약 13% 뛰었다. 코로나19 전원이지만 중국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지만, 이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팬데믹에서 벗어나며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오른 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1989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세우며 폐장했다. 연간 상승폭은 16%로, 아베노믹스

세계 주요 중앙은행 9국 1년간 자산 변화 추이
(단위 : 조 달러) ※출처: 니혼게이지아이신문



효과를 톡톡히 봤던 2013년 이후 7년 만의 최대폭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충격을 완화하고자 각국 중앙은행이 펼친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가 증시를 부양했다고 닛케이기는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3월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인하했으며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회사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에 돌입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초대형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지난해 그 규모를 확대하는 등 통화정책 완화에 매달렸다.

지난해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전년보다 63조 엔 늘어난 545조 엔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 중국과 영국, 호주, 스위스, 스웨덴과 캐나다 등 9개 주요 중앙은행의 총 자산은 2020년에 31조 달러로, 1년간 40% 이상 급증했다.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에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도 하락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한때 0.5%대로 떨어졌다. 독일과 프랑스 장기금리는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다.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18조 달러까지 확대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현재도 17조 달러 이상이다.

피델리티투자자산탁의 시게미 요시노리

투자전략가는 “채권 운용이 어려워지자 투자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주식 다른 금융자산으로 향했다”며 “저금리 환경에서도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하이테크 종목과 테슬라 등 환경 관련 종목에 특히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자국 증시 강세 견인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3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연간 6조 엔에서 12조 엔으로 끌어올렸다. 닛세이키초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 가치는 47조 엔으로 팽창했다.

다만 닛케이기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에 의지하는 자산 가격 상승은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불안정성도 따라다닌다”며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하려면 실물경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굿바이EU”... 존슨 총리 ‘엄지 척’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런던 총리 관저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에 서명한 후 양손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영국은 31일 밤 11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하면서 유럽연합(EU)을 완전히 떠나게 됐다.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47년의 동거를 끝내는 것이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격해지는 ‘디지털稅’ 갈등

佛 징수 재개에 美 보복관세로 맞대응...伊·英도 부과할 듯

지난 한 해 잠잠했던 글로벌 디지털세 전쟁이 새해에는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이미 디지털세 징수를 재개했으며, 유사한 세제가 발효된 이탈리아와 영국 등 다른 나라들 역시 수개월 안에 징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글로벌 디지털세 데탕트(Detente·긴장 완화)’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주로 미국의 IT 공룡인 구글, 아마존닷컴과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해 물리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가파(GAFA)세’라고도 불린다. 2019년 프랑스가 이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부터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세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당시 프랑스의 도입 결정에 미국이 반발, 24억 달러(약 2조6000억 원)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최고 10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절정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해 양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서 틀을 정하기로 하면서 휴전에 돌입했다. 프랑스는 디지털세 과세

를 1년 유예했으며, 미국은 추가 관세를 일단 보류했다. 문제는 양측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다국적 기업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년이 다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아무런 성과 없이 데탕트 기간이 다 끝나자 디지털세 과세를 재개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미 지난달 25일 과세 대상 기업들에 과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재개 소식에 미국도 곧장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당장 이달 6일부터 화장품, 핸드백 등을 포함한 13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놔다. 아울러 영국과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등 디지털세를 도입한 다른 10개국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디지털세 분쟁은 새해 벽두부터 다시 금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이날 디지털세와는 별개로 프랑스와 독일 항공기 부품 및 와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비둘기’ 등지 튼 연준... ‘이지 머니’ 계속

새로 투표권 갖는 연은 총재 4명·월러 신임 이사 모두 ‘통화완화’ 선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새해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 성향을 한층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 멤버가 새해에는 작년보다 좀 더 온건파적이거나 완화적인 성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순환제에 따라 새롭게 의결권을 갖게 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모두 기존보다 비둘기파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가, 새해부터는 굳건한 비둘기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신임 이사가 FOMC 상임 멤버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FOMC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이사 회 멤버 7명과 지역 연은 총재 5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이며 FOMC 부의장을 맡는다. 나머지 4석을 11명의 연은 총재가 교대로 1년씩 참여한다. 그런데 올해 투표권을 갖게 된 4명의 연은 총재가 전부 기존보다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2020년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2021년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 크리스토퍼 월러 신임 연준 이사

※출처: 블룸버그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매파’로 꼽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비둘기파 필드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자리를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자리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자리를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각각 대신하게 된다. 이들 모두 기존 위원들보다 완화

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새해에는 지난달 18일 연준 이사로 취임한 크리스토퍼 월러가 FOMC의 상임 멤버로 참여한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부총재였던 월러는 굳건한 비둘기파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워싱턴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노터데임대 교수를 지냈으며, 2009년부터는 세인트루이스 연에서 부총재를 맡아 연구활동을 책임졌다. 그는 과거부터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본격화로 새해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통화 긴축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연준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E) 정책을 유지하면서, 값싼 이자료를 쉽게 빌릴 수 있는 ‘이지머니(Easy Money)’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IT공룡 숨통 죄는 中 당국 알리바바 등 3개사에 벌금

반독점 규제로 자국 IT 공룡을 압박하는 중국 당국이 새로운 경고장을 보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규제 릴레이에 알리바바그룹 등 플랫폼 기업의 사름이 더 깊어지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전날 자국 메이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상청(영문명 JD닷컴), 웨이핀 후이에 벌금을 부과했다. 세 기업은 각각 7만6600달러(약 831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세계 최대 쇼핑 이벤트인 11월 11일 광군제에 앞서 상품 가격을 미리 올려놓고서 행사 당일 할인을 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홍보와 미끼 제품을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규제 조치는 벌금 액수가 크지 않지만, 당국의 인터넷 업종에 대한 반독점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10일 총국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표했다. 초안에는 특정 플랫폼이 판매자에 독점 거래를 요구하거나 데이터를 이용해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정한 사례였다.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중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약 83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2일에는 중국이 상무부와 함께 알리바바와 텐센트, JD닷컴, 메이판, 핀뎬 뉘, 디디 등 6개 기업을 불러 아파트 단지 단체 구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윈이 이끄는 알리바바는 당국의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마윈 설립자는 지난해 10월 말 공개적으로 당국의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가 미운털이 박혔고, 정부는 알리바바 산하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최해림 기자 rog@

〈시간·장소·상황에 맞춘 인재 등용〉

젊은 오너들 ‘TPO 인사’ 외부 수혈 동시에 팀워크 강조

2021 재계 기상도

—〈글 쓰는 순서〉—

- ① 투자 지도로 보는 미래 청사진
- ② 유망 먹거리 M&A 승부 거는 재계
- ③ ‘포스트 코로나’ 인력 확보 총력
- ④ 3·4세 경영시대 달라진 인재 등용

지난해 재계는 3·4세 경영시대를 개막했다.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은 회장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정의선 현대차동차그룹 회장은 작년 10월 회장으로 승진하며 전면에 나섰다. 한화는 3세, GS그룹은 4세 경영인을 경영 일선에 등판시켰다. 구본준 (주)LG 고문의 독립으로 구광모 회장은 본격적인 LG 4세 경영을 시작했다.

3·4세 경영인들은 이전 1·2세대들과 달리 기존 인사 문법에서 벗어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실용주의’가 깔렸다.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리거나 관례 등 기존 인사 문법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상황·장소에 따라 즉각 처방을 내리는 이른바 ‘TPO(TIME·PLACE·OCCASION)’ 인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부인재 수혈이다. 1·2세대 경영인들은 조직 충성심에 기반을 두고 내부 인재를 승진시키는 성과보상주의 인사를 많이 단행했다. 과거에도 외부인재 영입은 있었지만, 해외 박사 출신이나 수재급 한국인 인재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에는 경쟁 기업, 동종 업계 출신 인사나 외국인 인재 모셔오기에도 적극적이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정부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3·4세대 경영인 인사문법 특징

외부인재 수혈		수시인사
LG	2018년	3M 출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현대차	2006년	폭스바겐 출신 피터 슈라이어 기아차 사장

수시인사		원포인트 상시화
삼성전자	2018년	승현준 교수, 다니엘 리 교수
현대차	2020년	송호성 기아차 사장, 이용우 이노션 대표, 루크 동커볼게 현대차 부사장
현대차·SK·LG	2019·2020년	신입사원 수시채용

원포인트 상시화	
2018년	권영수 부회장·하현희 부회장 맞교체
2019년	LG디스플레이 정호영 사장 선임
GS	2020년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GS 이동

인사 문법 따로 없는 실용주의 신입부터 임원까지 ‘수시 채용’ 경쟁사·외국인 영입도 적극적 을 주요 CEO 유임해 친구 조화

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3M 출신의 신학철 수석부회장을 LG화학 수장에 앉혔다. 1974년 LG화학 창립 이래 첫 외부 출신 CEO였다.

정의선 회장은 기아차 사장이던 2000년대 중반 피터 슈라이어 사장을 기아차 최고디자인 책임자로 앉혔다. 피터 슈라이어 사

는 ‘디자인 혁신 경영’을 선언하고 ‘K 시리즈’, ‘스포티지’, ‘쏘렌토’ 등을 흥행시켰다.

인사 방침이 정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3·4세 경영인들의 새로운 전략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AI(인공지능)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AI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승현준(세바스찬 승) 교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다니엘 리 교수를 영입했는데, 이들을 정기 인사 아닌 2018년 6월에 삼성에 합류했다. 승현준 교수의 삼성리서치 소장(사장) 내 정도 연말 인사가 아닌 작년 6월에 이뤄졌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새 전장사업팀장으로 이승욱 사업지원TF 부사장이 선임됐

다. 이는 삼성전자가 전장사업팀을 신설된 2015년 조직개편 이후 5년 만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3월 기아차 신임 사장에 송호성 글로벌사업관리본부장을 선임했고, 7월에는 이용우 제네시스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이노션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1월에는 디자인 기반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최고창조책임자(CCO)를 신설하고, 담당 임원에 루크 동커볼게 부사장을 재영입하는 등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수시 인사와 함께 공격적인 원포인트 인사도 주요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취임 후 연말 인사에 앞

서 원포인트 인사로 권영수 부회장과 하현희 부회장을 맞바꾸는 핀셋 인사를 단행했다. LG디스플레이 정호영 사장 선임도 2019년 9월 깜짝 발표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원포인트 인사로 허서홍 GS에너지 전무를 GS로 이동시켰다.

총수 1·2세대들이 스타 경영인 발굴에 힘썼다면, 3·4세대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것도 달라진 인사 모습이다. 이견희 회장은 과거 윤종용, 진대제, 황창규, 이기태, 권오현 등 S급 스타 전문경영인을 배출시켰다. 이 회사가 평소 강조한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는 인재 철학 덕분이었다. 삼성 출신의 스타 경영인들은 ‘황의 법칙’, ‘애니콜 신화’, ‘초격차’ 등의 수식어를 만들며 삼성을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려놨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 고학력 시대를 겪으면서 기술적으로나 인재의 능력이 상향 평준화됐다. 3·4세 경영인들은 1명의 천재 대신 기존 구성원들과의 팀워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인재 경영을 펼치기 시작했다.

삼성과 LG, 현대차, SK그룹 등은 최근 인사에서 주요 계열사 CEO를 대부분 유임시키는 한편, 차세대 주자들을 사업부장으로 전면 배치하며 부분적인 세대교체를 이뤘다. 아울러 회사 성장에 이바지한 기존 CEO들을 용퇴시키는 대신 이들의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문과 자문 역할을 맡겼다. 재계 관계자는 “신구(新舊)의 조화를 통해 위기 극복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모습이 엿보였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공개 보름 앞둔 갤럭시S21, 기본 가격 10만~15만원 낮춘다

한국시간 15일 0시 언팩 행사 고성능 울트라에 S펜 첫 적용

삼성전자가 ‘갤럭시S21’ 시리즈 공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31일 IT 전문 트위터인 이산 아가왈(Ishan Agarwal)은 자신의 트위터에 갤럭시S21 언팩 초대장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는 “갤럭시S21 언팩은 1월 14일 그리니치 표준시(GMT)로 오후 3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5일 오전 0시다. 공식 초대장과 시간까지 유출된 건 처음이다.

공개된 이미지는 갤럭시S21 시리즈의



측된다. 갤럭시S21 시리즈는 △6.2인치 △6.7인치 갤럭시S21 플러스 △6.8인치 갤럭시S21 울트라로 출시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받는 건 갤럭시S21 울트라에 적용되는 S펜 기능이다. 다만 갤럭시노트 시리즈와 달리 갤럭시S21 울트라는 S펜을 꽂을 곳이 따로 없다. 별도 액세서리나 스마트 클리어 뷰 커버 일부로 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측된다.

갤럭시S21 시리즈는 △6.2인치 △6.7인치 갤럭시S21 플러스 △6.8인치 갤럭시S21 울트라로 출시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받는 건 갤럭시S21 울트라에 적용되는 S펜 기능이다. 다만 갤럭시노트 시리즈와 달리 갤럭시S21 울트라는 S펜을 꽂을 곳이 따로 없다. 별도 액세서리나 스마트 클리어 뷰 커버 일부로 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갤럭시S21과 플러스 모델 가격은 전작 대비 약 10만~15만 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21의 기본 모델 가격은 9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



LG디스플레이, CES서 투명 OLED 공개

LG디스플레이는 11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다양한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투명 OLED’를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투명 OLED를 양산 중인 LG디스플레이는 스마트홈, 메트로, 레스토랑 등 3개 투명 OLED 전

시즌을 통해 다양한 활용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가 CES2021에서 선보이는 ‘레스토랑’·투명 OLED를 이용해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삼성준법위원장 “불신의 벽 허물 것”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

“조금이라도 더 불신의 벽을 허물어 나가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다음날인 31일 송년사를 통해 지난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준법위는 올해 초 삼성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출범해 11개월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 측 추천인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부정적인 의견, 이 부회장 변

호인 측 추천 인물인 김 변호사는 긍정 의견을 냈다.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강 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일부 항목을 빼놓고 긍정 내용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심리위원들 사이에 평가의견이 서로 엇갈렸고, 혹평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긍정평가가 들어있었다”라며 “평과 결과가 어떤지보다 더 큰 의미는 위원회를 되돌아볼 기회를 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 전문심리위원 평가를 계기로 부족했던 점들을 개선하는 일에 하루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준법위의 핵심 의제를 승계, 노조, 소통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3월이 부회장과 7개 관계사에 이와 관련한 권고 의견을 냈고, 5월이 부회장이 직접 기

자회견에 나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발표를 했다”라며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변화를 다짐하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준법위 존재를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여론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 일각에선 위원회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기 위해 급조한 ‘겉치레 면피용’ 짚수라고 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첫 돌도 지나기 전 완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어려서지 않다.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위원회가 할 일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게 된다”라며 “아직은 미진하지만 앞으로 해나갈 더 많은 일, 그 가능성을 더 눈여겨 봐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 선임

에어부산 등 계열사 대표 교체

아시아나항공이 신임 대표이사에 정성권(사진) 중국지역본부장(전무)을 선임하는 등 계열사 사장과 임원진을 대폭 교체했다. 이번 임원인사는 2018년 이후 2년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31일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의 모든 대표이사와 상당수 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임원 직책 7개가 축소됐고, 임원 15명이 퇴임했다. 퇴임자는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박세창 아시아나HDT 사장 등 사장 3명과 부사장 3명, 전무 6명, 상무 3명이다. 박삼구 금호그룹 전 회장의 장남이자 금호가 3세인 박세창 사장은 금호산업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원 퇴임에 따라 신규 임원 8명이 선임됐다.

정성권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격하고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에어부산은 안병석

아시아나항공 전무, 아시아나에어포트는 남기형 아시아나항공 상무(전무 승격), 에어서울은 조진만 상무, 아시아나HDT는 서근식 상무(전무 승격)가 각각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장이 맡지만, 이번 인사에서 사장 승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사장과 전무들이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1988년 입사한 정 전무는 재무·기획·영업·인사·노무 등을 섭렵한 항공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이통사 “LTE 연동 필요없는 ‘5G SA’ 상반기 상용화”

과기부 “LTE 혼용 5G NSA모드, LTE 속도 저하 일으킬 수 있어”
이통사, 지난해 초 SA 상용화 언급했지만 시장성 등 문제로 연기
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 B2B 활용 기대… 3사 동시 서비스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2월 30일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LTE 속도가 전년보다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LTE와 5G를 혼용한 비단독모드(NSA) 방식이 LTE 속도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LTE 없이 5G 기술만 사용하는 단독모드(SA)는 언제쯤 상용화할까?

현재 국내 이통사들의 5G 기술은 3.5GHz 대역에서 5G 망과 LTE망을 연동해 쓰는 비단독모드(NSA)다.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신호는 LTE 망으로 주고받고, 트래픽은 5G 망으로 오가는 방식이다. 반면 SA는 신호와 트래픽 모두 5G 망만을 이용한다.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 망을 쓰기 때문에 NSA 방식보다 지연 시간이 단축되고, 배터리 소모가 적다는 이점이 있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초부터 5G SA 상용화를 언급했지만, 결국 상용화는 해를 넘기게 됐다. 통신 업계는 그 배경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시장성이다.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SA 상용화를 위한 투자는 양이 아닌 질을 위한 투자다. 현재 5G는 양적인 면에서도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SA 상용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할 만큼 시장성이 높는지 뚜렷한 판단이 안 서 있는 셈이다.

5G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NSA와 SA의 차이는 배터리 소모 등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그 영향이 미미하다. 통신 접속 시간이 빠르고, 데이터 처리 효율이 높은 SA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KT 네트워크 직원들이 KT 구로타워에서 '5G SA-NSA 통합 코어망'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는 뜻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GHz처럼 SA도 기업 간 거래(B2B)에 적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즉,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SA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시장에 충분히 나왔을

때 효용성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28GHz 대역 기지국 구축과의 연관성이다. 이론적으로는 주파수 대역과 NSA/SA 서비스 제공 방식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즉 28GHz 대역에서도 NSA

방식으로 5G를 제공할 수 있고, 3.5GHz 대역에서도 S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주파수 대역의 특성과의 조화를 볼 때 28GHz 대역에서 SA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28GHz 대역은 높은 대역의 주파수 특성상 속도가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가 핵심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28GHz 대역에서는 SA로 5G를 제공하는 게 자연스럽다.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GHz 5G 기지국을 각사당 1만5000국씩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SKT, KT, LG유플러스 3사는 5G 28GHz 기지국을 일부 개통하고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통신 업계는 SA 상용화 시점을 올해 상반기쯤으로 전망한다. 3사 모두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 NSA 방식의 5G 서비스를 지난해 4월 3사가 동시하기 시작했듯 SA 상용화도 3사가 시점을 맞춰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14억 공공조달

참숯테크 ‘면진테이블’ 등
21개 기업 163건 계약 성과
96% “시장개척 도움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제1차로 지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약 4개월 만(8~11월)에 114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성과를 보였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성공한 제품 중 공공성이 뛰어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주요 공공기관을 찾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난 7월에 1차로 44개 제품을 지정했다. 그 동안 운영성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약 4개월(8~11월) 만에 공공조달을 통해 총 21개 기업에서 163건, 약 114억 원 규모의 구매계약이 이뤄졌다.

대표적 사례는 주식회사 참숯테크의 ‘면진테이블’이다. 면진테이블은 지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주요 판매 실적

(주)참숯테크

대형 지진 충격 시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통신, 전력 분야 손상을 방지하는 면진테이블
- 울산화력발전, 행정안전부, 삼천포화력발전 등에 14.8억 원 납품

(주)웃샘

격리 기능과 운반 기능이 통합된 감염 및 감염 의심환자 이송용 장비
- 한국국제협력단, 조달청 등에 16.6억 원 납품

(주)휴먼아이씨티

산업현장 영상관계 관리를 위한 지능형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
- 조달청, 한전KDN 등에 11.7억 원 납품

으로 인해 통신장비, 계측설비 등 진동이나 충격에 민감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한국가스공사, 울산화력발전 등 다양한 공공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어 약 15억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 외에도 웃샘의 ‘음압캐리어’ (16억 원), 휴먼아이씨티 ‘인공지능(AI) 비전시스템’ (11억 원) 등이 혁신제품 지정 이후 1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혁신제품 지정 기업(44개) 중

95.5%(42개)가 동 제도를 통해 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았고, 70%(31개)가 혁신제품 지정 이후 구매문의 빈도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제2차 혁신제품 지정에는 158개 제품이 신청돼 이 중 53개 제품을 후보로 선정했다. 올 1월 초 조달청책임자의 회를 통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정보통신 15개(28%), 기계소재 14개(26%), 전기전자 9개(17%), 화학 6개(11%), 바이오의료 4개(8%), 에너지자원 4개(8%), 지식서비스 1개(2%) 순으로 여러 분야의 제품이 지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의 구매를 통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혁신제품 지정에 지속해서 추진 및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본격 추진해 산하기관에서 선제적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에 대한 사용평가를 피드백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민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배민, 영세식당 14만곳에 111억 추가 지원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작년 12월 광고비 등 50% 환급

‘배달의민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돕고자 총 111억원 규모의 업주 지원 방안을 추가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먼저 배민은 업종 업소 중 연간 매출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 치 윌트라광고비, 오픈리스트 및 배민라이더스 중개이용료 등을 모두 50% 환급하기로 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환급액은 내년 1월 마지막 정산일에 업주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업주당 최대 환급액은 올 상반기 지원 때와 같은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4만 곳의 업소에 111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환급은 배민이 올해 시행하는 네번째 조치다. 배민은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지난해 3월, 4월, 8월에도 업종 업주에게 광고비 50%를 환급하여 지금까지 총 56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광고비, 수수료 환급 외에 추가 지원정책도 마련됐다. 배민은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 지원의

대상 범위를 배민 입점 업주에서 국내 외식업 자영업자로 대폭 확대기로 했다. 배민에 입점하지 않은 외식업 자영업자도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배민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2월 배민이 조성한 50억원 규모의 기금에서 쓰인다.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점,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업 등의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민 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이 명시된 이자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28일부터 3월 7일 까지다.

2020년에 대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업주가 입력한 개인 계좌로 올해 3월 중 입금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민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해 배민이 올해 식당 업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행한 지원금은 총 813억원 규모다.

이다원 기자 leedw@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8만1346곳… 종사자 132만명

과기부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4만8586곳 ‘고위험연구실’ 분류
“보호구 설치 등 안전 관리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말 기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법정 의무 이행현황 등을 조사한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실태조사는 전국 4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8개월간 비대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설치·운영 중이면서 연구활동종사자 10명 이상인 대학(338개)·연구기관(176개)·

기업부설(연)(3521개)은 총 4035개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4542개에서 최근 5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실은 8만1346개로 이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연구실은 4만8586개로 집계됐다.

전체 연구활동종사자는 132만2814명이었다. 이중 연구초년생인 대학생(학과정)이 88만4094명으로 6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110만 명으로 이중 법정시간을 충족한 이수자는 71만 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교육 대상 연구활동종사자는 32만 명이었으며 이중 법정시간을 충족한 이수자는 27만명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

부는 2021년 연구실 안전 교육체계를 정비·개편해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수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 보호구 비치 의무화, 연구실 피해 보상한도 상향,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등 연구자 보호 강화를 추진했다”며 “연구개발투자(R&D) 100조 원 시대를 맞아 양적 성장 뿐만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해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현장 친화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네이버, 사내 우수 개발 프로젝트에 3.3억 포상

네이버는 올해 서비스와 개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엔이노베이션 어워드 2020’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10주년을 맞이한 엔이노베이션어워드는 한 해 동안 개발된 기술 중 네이버 여러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다.

우수 프로젝트는 각 조직에서 출품한 프로젝트를 네이버의 개발 리더들이 직접 평가해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 선정은 ‘서비스 개발’과 ‘연구 개발’의 두 영역에서 진행된다.

서비스 개발 영역 우수 기술 프로젝트에는 ‘네이버페이 헤택 컴포넌트 리뉴얼 프로

젝트’가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네이버 페이의 ‘헤택’ 컴포넌트를 오라클에서 네이버 사내 분산 데이터베이스인 ‘nBase-T’로 교체하고 마이크로서비스화한 프로젝트다.

연구 개발 영역에서는 네이버 연구 개발 플랫폼에서 보안 관련 점검을 자동으로 수행, 개발 단계에서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Toothless’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소용라이브 내 판매자들의 모바일 라이브 기능을 제공하는 ‘프리즘 라이브 스트리밍 SDK’, 영수증을 통해 사람에게는 쉽고 봇에게는 어려운 캡차를 개발한 ‘영수증 캡차’가 서비스 개발 우수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조성준 기자 tiatio@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업 계 최 초 맞 춤 형 구 독 서 비 스

월 1만 원으로 개미지옥에서 탈출하는 법

“ 친구도, 유튜브도, 찌라시도 따라가지 마라! ”



소액 투자자를 위한 업계 최초의
맞춤형 구독 서비스

KB증권 프라임클럽 오픈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형 리포트가 옵니다
실시간 투자 정보는 물론 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 PB 상담까지
첫 이용 고객 3개월 구독료 무료 혜택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후 구독료 월 1만원,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 센터(1566-0055),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able,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791호(2020년 4월 20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HTS,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1273%+2,000원 / 모바일 0.1973% 일률적용 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은행연계/비대면계좌) HTS, 홈페이지 0.015% / 모바일 0.12% 일률적용 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투자성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KB 증권**

<라이브방송>

회장님은 ‘라방’ 스타…오너 출연하자 매출 ‘날개’

고객 지갑 직접 여는 CEO

회장님들이 움직이자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활황인 가운데 유통 소비재 기업의 오너 경영진이나 대표이사까지 일명 ‘라방’, 유튜브 채널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영진이 가진 영향력으로 자사제품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통을 강조한 친근한 이미지를 노출해 기업 리브랜딩에 성공하겠다는 전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가는 코로나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손님이 몰리는 채널이 라이브방송, 유튜브 콘텐츠라는 판단에 따라 ‘회장님’을 앞세워 라방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올해엔 2조8000억 원으로 7배 뛴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10조 원 규모로 불어나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4%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교보증권은 전망한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벌써 두 차례 연달아 자사 브랜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이마트LIVE 채널의 ‘정용진 부회장이 배추밭에 간 까닭은?’과 스타벅스 유튜브



이마트 LIVE에 출연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카카오톡 라이브



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함영준 오투기 회장



이완신(왼쪽) 롯데홈쇼핑 대표의 ‘완신 라이브’

라이브커머스 올 2.8兆로 성장 오투기 오너 가족, 신제품 시연 정용진, 배추 캐고 직접 요리도 기업 실적·이미지 향상 일석이조

채널 스킵TV의 ‘한국에 스타벅스 들어온 사람이 정용진 부회장(형이 왜 거기서 나와?)’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직접 배추를 캐고 수확한 배추로 요리하는가 하면, 본인이 스타벅스에서 즐겨 마시는 ‘최애음료’를 언급하고 바리스타한테 커피 테이스팅을 배우기도 한다.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초 카카오톡 라이브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광희나는 신제품 시리즈’와 ‘황금올리브치킨’ 할인판매에 나섰다. 특히 이 방송에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깜짝 등장에 이목을 끌었다. 자사 브랜드 모델인 황광희와 함께 만담을 펼치고, 시청자의 실시간 댓글 요구에 따라 치킨을 직접 시식하면서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콘텐츠)을 선보이기도 했다.

유통가 라방 콘텐츠가 ‘회장님’ 카드를 꺼내는 전략은 주요했다. 실제 오너 경영진이 출연한 영상 콘텐츠마다 매출 성과로 이어진 효과가 확실했던 것.

정용진 부회장이 스킵TV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로 꼽은 △자몽 허니 블랙티 △제주 유기농 말차로 만든 라떼 △나이트로 콜드 브루 △콜드 브루 중 나이트로 콜드 브루는 ‘정용진 음료’라 불리며 영상 업로드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매출이 직전 2주보다 3배가량 급성장했다.

BBQ 판매실적 역시 라방 방영 당일에만 평균 기프티콘 판매액보다 51%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라방은 동시 접속자 수 8000명을 기록하며 카카오톡라이브 개국 이후 처음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경영진 라방은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해 기업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오투기 함영준 회장은 뮤지컬 배우인 딸 함연지의 개인 유튜브 ‘크리스마스 특집’에 얼굴을 비쳤다.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지난해 11월 다녀온 제주도 가족여행과 성탄절 당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해먹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함 회장은 식사를 준비하며 최근 오투기가 출시한 ‘햇케이크 믹스’를 선보였다. 간편하게 흔들어서 먹는 셰이크 믹스 제품을 직접 시연하며 팬케이크를 만들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상반기 이완신 대표 이름을 딴 ‘완신 라이브(완전 신박한 라이브)’를 진행했다. 이 대표가 직접 신입사원 시절 에피소드를 전하거나, 직장선배로서 사회생활 팁을 전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표이사까지 직접 추천하는 롯데홈쇼핑 상품을 개봉하는 ‘언박싱 라이브’도 진행했다.

김한경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포털사업자, 유통업체,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너나없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해 성장궤도에 올랐다”라면서 “중장년층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고, 10~30세대 젊은 세대들이 동영상으로 쇼핑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라이브커머스 수요는 급격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140만명 폐업한 코로나 시대, 살길은 ‘1코노미’

새해 창업시장 트렌드

외식업 1인 메뉴 배달 활성화 디지털노마드·중고시장 성장

2021년 창업시장 트렌드는 1코노미, 안전과 안심, 데이터 등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창업경영연구소는 31일 ‘올해 창업 시장 결산 및 내년 전망’ 자료를 통해 새해 창업 시장이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서비스 기술 고도화(Service Technology), 안전과 안심(Safety), 중고의 재발견(Secondhand) 등 4S와 데이터경영(Data Management), 디지털노마드(Digital Nomad) 등 2D 키워드로 대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트렌드는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결되는 현상이다. 새해 창업 시장 역시 지난해부터 이어진 팬데믹 여파로 보다 안정을 추구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활발한 중고거래가 이뤄지며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서비스 고도화가 이뤄지는 한편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창업 아이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경영연구소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1인가구의 부상은 2021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52.7%가 1~2인가구이며 이 중 34.8%가 1인 가구에 달한다. 이들을 위해 상품의 가격을 줄이고 중량을 조정하거나 외식업의 경우 1인 배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과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통해 새 비용을 절감하는 경영기법 도입도 필수다. 소비자들의 소비형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한다면 새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요일이나 날씨별 제품 판매 비중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상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재료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비대면 소비의 객단가 증가도 새해엔 눈여겨봐야 한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유목민처럼 움직이는 소비자와 소

통하는 것만으로도 매출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

서비스 고도화도 예상된다. 서비스와 기술의 만남이라는 지속적인 변화는 새해 창업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전망이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이 되면서 오프라인적인 상권은 이미 무너졌다. 서비스 고도화는 단순 구매뿐 아니라 소비자와 가격을 협상하거나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통해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마켓의 성공에서 본 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관심꺼리다. 창업자라면 전시장품이나 단순 번심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이를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배송해주거나 중고 거래시 자주 발생하는 AS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론칭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

한편 2020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인 73만 명이 새로 창업했으며 폐업자는 2배 가량 많은 1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롯데마트, 한우 최대 30% 할인

롯데마트가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기념해 ‘지리산 명품 순우한우’와 ‘강원한우’ 등 다양한 소고기를 6일까지 모든 점에서 LPOINT 회원 대상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2017~2019년 3년 연속 명품인증에 빛나는 ‘지리산 순우한우’와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의 ‘강원한우’ 전 품목을 LPOINT 회원에게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떡국용 1등급 한우 국거리(100g/냉장)를 비회원가 5600원, LPOINT 회원가 3920원, 한우 사골(냉동 1팩/국내산 한우고기)을 비회원가 1만6500원, LPOINT 회원가 825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가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기념해 ‘지리산 명품 순우한우’와 ‘강원한우’ 등 다양한 소고기를 6일까지 모든 점에서 LPOINT 회원 대상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2017~2019년 3년 연속 명품인증에 빛나는 ‘지리산 순우한우’와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의 ‘강원한우’ 전 품목을 LPOINT 회원에게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떡국용 1등급 한우 국거리(100g/냉장)를 비회원가 5600원, LPOINT 회원가 3920원, 한우 사골(냉동 1팩/국내산 한우고기)을 비회원가 1만6500원, LPOINT 회원가 8250원에 선보인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셀트리온,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글로벌 기업 유치 속도

씨모피서·아반토·싸이티바 등 원부자재 생산 시설 투자 논의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지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씨모피서 사이언티픽, 아반토, 싸이티바 등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과 인천 송도 내 각종 제조 및 용역 공급 시설에 대한 투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송도에 1억 달러를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제조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기업 씨토리우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씨모피서 사이언티픽은 미국 메사추세츠 월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국내에 배지 제조시설 및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반토는 생명과학, 화학, 첨단소재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에 관련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상용 의약품의 주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싸이티바는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2016년에 송도 내에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최적화 서비스와 공정 관련 교육 담당 센터를 설립하고 활발히 운영 중이다. 최근 GE헬스케어로부터

터 분사 이후 셀트리온과 긴밀히 협업해 송도 지역에 추가 투자안을 수립하고 있다.

중요 바이오 원부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생산 및 공급 역량을 갖춘 이들 기업이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클러스터 내에 각종 제조시설과 물류창고 등에 투자를 진행하면 국내 바이오 기업은 중요 원부자재 및 용역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배지와 같은 핵심 원자재를 공동으로 개발 및 공급하고, 주요 공급 기업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할 수 있다면 글로벌 공급기업과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CJ올리브영, 이달의 상품 담은 ‘올리브 키트’ 증정

5만원 이상 구매 회원 선착순

CJ올리브영은 1월부터 매달 초 엄선한 주요 인기 브랜드의 대표 상품 체험분을 증정하는 ‘올리브 키트’ 정기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리브 키트’는 CJ올리브영이 시즌 및 트렌드 변화를 고려해 선정하는 이달의 브랜드인 ‘올영픽(Pick)’ 상품들로 구성된 체험분 키트다. 매월 바뀌는 ‘올영픽’ 브랜드와 키트 구성을 연계, 헬스앤뷰티 시장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CJ올리브영은 정기적인 키트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을 사용해본 뒤 구매를 결정하는 일명 ‘트라이슈머’ 공략을 가속할 예

정이다. CJ올리브영은 새로운 경험 요소를 제공하고 우수한 상품을 효과적으로 소개, 고객들의 쇼핑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을 세웠다. 프로모션의 첫 시작인 ‘1월 올리브 키트’에서는 이달 ‘올영픽’ 브랜드들의 인기 상품 체험분 8~9종을 만나볼 수 있다. 한겨울 추위에도 피부 보습 장벽을 강화해 줄 더모코스메틱과 최신 헬스앤뷰티 트렌드를 제안하는 주요 브랜드를 선별했다. △보타닉힐 보 △바이오템 △아벤스 △피지오젤 △벤튼 △헤드스파 △달리프 △치앤박 등이다.

‘1월 올리브 키트’는 1일부터 소진 시까지 전국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CJ ONE 회원에게 선착순 증정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코스피 2500~3300선… 리스크 관리하며 강세장 대비”

증권사 CEO 새해 증시전망

국내 5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해 증시 투자전략으로 ‘선(先) 리스크 관리, 후(後) 수익률 극대화’를 제시했다. 내년 증시는 코로나19 출구전략 이슈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새로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변수다. 바이든은 미국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해 이미 강력한 경고를 했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대만계인 캐서린 타이 하원 세입위원회 수석 고문을 지명하면서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증권사 CEO들은 미국의 선수가 바뀌지만, 기존 미·중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에 주목했다.

5대 증권사 CEO들은 31일 이투데이가 실시한 ‘2021년 증시 전망’ 설문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이들은 새해 코스피지수를 2500~3300선 사이로 전망하며 지난해보다는 목표수익률을 한 단계 낮춰 잡을 것을 권했다.

◇증시 상승흐름은 지속될 것=국내 증시는 꿈의 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3000포

5대 증권사 CEO, 새해 증시전망과 투자전략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최현만 수석부회장	김성현 대표이사	정영채 대표이사	정일문 대표이사	장석훈 대표이사
2021년 예상 코스피 밴드	제시하지 않음	2600~3300	2500~3000	2620~3100	2100~2850
유망 투자처	글로벌 성장주	주식, 부동산	신흥국 주식, 원자재, 글로벌 인프라	컨택트 업종, 경기 민감주	미국·중국·국내 주식
증시 전망	대체로 양호, 상고하저	3000포인트 돌파 가능성, 단기조정 상존	양호한 성과 예상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	추세적 우상향 구조 진입

하반기 글로벌 경제 살아나며

코스피 3000선 안착 가능성

개인 증시 참여도 이어질 전망

빅테크 규제·美中분쟁 등 변수

‘상고하저’ 흐름 나타날 수도

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5대 증권사 CEO들이 제시하는 새해 투자전략은 유동성 장세를 염두에 두고 투자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출구전략 이슈가 제기되고 경기회복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해 ‘브이(V)’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 리스크를 통제하며 강세장에

대비하라는 주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하반기 또는 2분기 말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소비 고용 등 실물지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도 3000선 안착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증권사 CEO들은 상반기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며 2분기 이후 상승장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새해 투자수익률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CEO들이 제시한 새해 증시의 키워드도 이런 내용이 주류다.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코스피의 3~4월 인플레이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스크 및 공매도 재개(3월15일) 등으로 국내 증시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코스피 순이익이 2020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달러화 약세 흐름에 기반을 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할 가능성 △초저금리에 기반한 개인들의 증시 참여가 계속되는 점 등은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역시 “2021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고, 2020년 대비 상장기업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내 증시도 양호한 성과를 보일 것”이라며 “연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환경도 지속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상고하저 가능성도 상존=대부분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내 증시 리

터들의 판단이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경우 올해보다 수익률 기대감은 낮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증시 여건은 대체로 양호하다”면서 “다만 금리·주가의 활인율 상승 가능성, 인플레이션 조짐 가시화시 연준 스탠스 변화에 대한 우려, 미·중 분쟁 가능성, 글로벌 빅테크 규제 가능성 등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국내외 금리상승 부담이 누적되고 내후년 실적 둔화 전망이 선반영되면서 주춤해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증권사 CEO들은 주식 투자를 유망 투자처로 꼽고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특정 업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익기여도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증시의 경우 컨택트 업종과 대형 가치주, 경기민감주들이 좋은 성과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역시 내년 유망 채테크 투자처로 미국, 중국, 국내 주식 등 주식 전반 투자를 제시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은행권 새해 전략 “조직 슬림화·디지털 강화”

국민은행 ‘플랫폼 조직’으로 개편

신한, 직위체계 3단계→2단계 축소

하나,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 신설

은행권이 연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수익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슬림화해 의사결정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 전략을 강화해 금융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사모펀드 사태로 바닥까지 떨어진 고객신뢰 회복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도 전면에 내세웠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금융플랫폼 기업’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플랫폼조직 신설 △고객 마케팅 강화 △신속한 실행력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디지털, IT, 데이터 등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던 조직을 고객 관점에 기반한 플랫폼 조직으로 전면 개편했다. 플랫폼조직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기획과 개발,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브옵스(DevOps) 조직으로 운영한다. 사업조직(Biz)과 기술조직(Tech)이 한데 어우러져야 속도감 있는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사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 부서의 의사결정 라인을 슬림화한다. 마이데이터플

시중은행 조직개편

은행	핵심 내용
KB국민은행	플랫폼 조직개편(사업+기술 통합), 핵심사업 부문에 ‘단’ 부여, 부서장에 본부장급 배치
신한은행	직위체계 3단계→2단계로 축소해 조직 슬림화와 책임경영 실천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 신설
우리은행	3개 그룹 축소, 임원수 감축해 조직 효율성

랫폼단, 개인마케팅단, 리브모바일플랫폼단, 미래컨텐츠추진단, 기관영업추진단, 클라우드플랫폼단 등 국민은행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사업 부문 조직명칭에 ‘단’을 부여했다. 부서장에 본부장급을 배치해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진 직위 체계를 축소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수평적 소통을 효율화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부행장-부행장보-상무 3단계로 운영되던 경영진 직위 체계를 부행장-상무 2단계로 축소해 부행장급 경영진이 각 그룹별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동시에 경영진 간 수평적인 소통을 활성화해 내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사업추진의 실행력에 힘을 보탠다.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마케팅부를 신설했다. 소비자 보호 및

고객신뢰 강화를 위해서는 특화상품부, 상품관리부를 만들었다. 미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금과 결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한 자금시장본부로 새롭게 운영한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은행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다.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은 고객 입장에서 고객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한다.

기존 18그룹·1연구소·19본부(단)로 이뤄졌던 조직 체계를 15그룹·1연구소·17본부(단)로 줄였다.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업무체계의 중심을 상위 조직인 부서에서 팀(Unit)으로 전환했다. 부서장이 보유하던 전결권을 팀 리더에게 부여해 실무자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도 3개 사업그룹을 줄이고 임원 수도 감축하는 등 조직을 대폭 슬림화했다. ‘영업·디지털그룹’을 신설, 디지털 혁신과 영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대면·비대면 영업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그룹과 기관그룹을 ‘개인·기관그룹’으로 통합, 산하에 부동산금융단을 배치한다. 기업그룹, 중소기업그룹을 ‘기업그룹’으로 통합해 외환사업단을 산하에 배치한다. HR그룹과 업무지원그룹도 ‘경영지원그룹’을 신설, 통합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본부조직을 대폭 슬림화해 임원수도 3명 축소했다.

김법근 기자 nova@

신임 농협은행장에 권준학 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

NH농협금융지주는 3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농협은행 신임 은행장에 권준학(사진)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본부장(상무)을 추천했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 24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후, 경영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시일 내에 집중적인 심사를 거쳤다. 경영능력, 현장과 전략·기획의 균형감각, 디지털 역량, 사업시너지 등을 중

심으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심층면접을 거쳐 권 본부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권 신임 농협은행장은 1989년 농협에 입사했다. 농협은행 퇴직연금부장과 개인고객부장, 경기영업본부 본부장,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퇴직연금부장 재임 시절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NH로보-Pro’를 도입해 농협금융의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에 힘썼다. 개인고객부장 재임 중에는 ‘농협금융 통합우수고객제도’ 참여 계열사 확대 ‘지역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확대 설치로 농협금융 대고객 서비스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권 내정자는 이날 농협은행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이다.

김법근 기자 nova@

쏟아진 수익률에 세액 공제까지 연금펀드 인기, 새해에도 쭉~

일주일새 1800억 자금 유입

지난해 수익률도 10% 이상

동학 개미가 ‘스마트’ 개미가 됐다. 연금펀드에 배당한 개인투자자들이 수익률과 세액공제 혜택 모두 챙기면서다. 특히 만 50세 이상 개인투자자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입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3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12월 28일 기준), 지난 한 해 동안 퇴직연금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에 각각 1조 4721억 원, 3201억 원이 증가했다. 막차를 타는 개미들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새 1733억 원, 105억 원이 몰렸다.

이에 지난해 퇴직연금펀드와 연금저축펀드 설정액은 각각 17조4048억 원, 12조4498억 원으로 ETF(국내주식) 다음으로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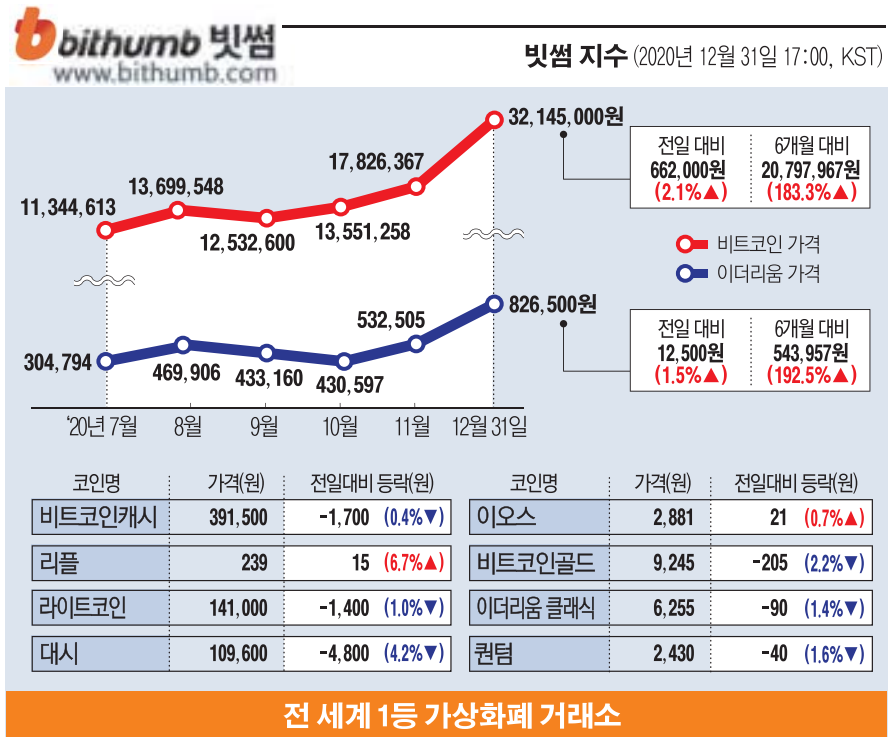
연금펀드란 10년 이상 납입시 만

55세 이상부터 주기적으로 수령하는 펀드로 장기 적립식 투자 방식이다. 과거에는 노후 자금 마련의 대표 상품으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연말정산을 위한 중요한 소득공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증시 호황에 쏟아진 수익률도 쟁길 수 있었다. 지난해 퇴직연금펀드와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12월 28일 기준)은 각각 10.24%, 15.48%다. 모두 10%를 웃도는 수익률이다. 세액공제를 노리고 가입한 막차 개미들 역시 재미를 봤다. 지난 12월 수익률 역시 퇴직연금펀드와 연금저축펀드 각각 2.41%, 3.73%다.

한편, 증권가는 연금펀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올해 긍정적 증시 전망에 정부의 추가 세제 혜택이 더해지면서다. 지난해 정부는 노후 준비 지원의 일환으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2019년>

강남 3구 주택분 종부세 3648억…전국 38% 부담

서울 강동구 제외 24개구 2배 늘어
7개구 종부세가 전국 절반 차지
작년 납부자 늘어 종부세 증가할 듯
올해도 세율 인상 예고…부담 늘 듯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 거주자가 낸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전체 세수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2019년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친 종부세가 가장 많이 걷힌 곳(소유자 거주지 기준)은 서울 강남구다. 2019년 강남구민과 관내 법인이 낸 종부세는 6193억 원이다. 전국 종부세 세수(약 3조72억 원)의 20% 이상이 강남구에서 걷혔다. 이어 서울 중구(2710억 원)와 서초구(2128억 원), 영등포구(973억 원)순으로 종부세 납세액이 많았다.

개인이 주로 내는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도 강남구가 1위였다. 2019년도 주택분 종부세(9523억 원) 가운데 21.7%(2070억



원)가 강남구 주민과 관내 법인에 부과됐다. 서초구(1065억 원)와 용산구(561억 원), 송파구(513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른바 강남3구라 불리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주택분 종부세 세액을 합치면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의 38%를 차지한다. 전년도보다 전국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37%)이 소폭 증가했다. 여기에 용산구와 중구(233억 원), 성동구(166억 원), 영등포구(160억 원)를 더하면 서울 7개 구에서 걷힌 주택분 종부세액이 전국 세액의 절반을 넘어선다.

서울 밖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는 경남 진주시를 제외하면 성남시(384억 원)와 용인시(229억 원), 수원시

(125억 원)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택분 종부세가 많이 걷혔다. 지방 광역시에선 대구 수성구(125억 원)의 세액이 가장 많았다.

주택분 종부세액이 서울에 몰린 것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과세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세당국은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세 표준인 각 주택의 공시가격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선 종부세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 서울에선 2019년 공시가격이 14% 상승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2018년 22만1196명에서 29만5362명으로 7만 명

이상 늘었다.

납세 대상뿐 아니라 부과액도 늘고 있다. 서울 자치구 25곳 중 강동구를 제외한 24곳에서 2019년 주택분 종부세가 2018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동대문구에선 2018년 22억 원이던 주택분 종부세 부과액이 지난해 78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뛰었다. 오름 폭이 가장 작은 강동구조차 증가률이 97%(40억 원→78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 서울에선 10만 명이 늘어난다. 예상 종부세 결정세액은 약 3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00억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 종부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전국적으로 평균 6.0%, 서울은 14.8%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2주택 이하 개인 보유자는 올해보다 0.1~0.3%포인트(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P 상승된다. 정부는 현재 50~70%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90%까지 높이겠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 투기 세력에 대한 징세라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집값이 상승하면서 종부세가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매겨지게 됐다”며 “본래 취지에 맞춰 과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올 민간 39만 가구 ‘분양가뭄’ 해소되나

작년보다 20% 증가…이달 2.2만 가구

새해 첫 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262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1월은 전통적인 분양 비수기로 분양물량은 적지만, 이달 이후 공급 물량은 차츰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올해 전체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약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일반분양 물량은 2만2629가구(1순 위 청약 기준)로 집계됐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1만3403가구(59.2%), 지방은 9226가구(40.8%)가 공급된다. 시도별로는 인천의 공급물량이 7721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경기(5682가구)와 경북(379가구), 세종(2305가구), 대구(1254가구) 순으로 공급량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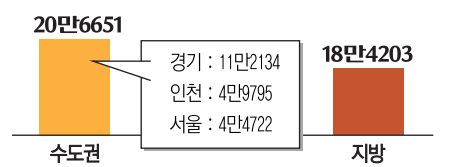
특히 이달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와 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 A28블록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 ‘평택지제역자이’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줄줄이 분양에 나선다.

새해 첫 달 공급물량은 적지만 올해 전체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더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국 407개 단지, 총 39만85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분양계획 물량 32만5000여 가구보다 약 6만5000가구 이상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출처: 부동산114

	계획	실적
2019년	38만6741가구	25만3533가구
2020년	32만5879가구	29만6384가구
2021년	39만854가구	?

2021년 주요 지역별 분양 물량 (단위 : 가구)



트 평균 분양 실적(28만671가구) 대비 약 10만 가구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20만6651가구가 공급되며 지방에는 18만4천20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올해 수도권 물량은 경기(11만2134가구), 인천(4만9795가구), 서울(4만4722가구) 순으로 많았다. 지방에서는 대구(3만1103가구)의 분양 예정 물량이 가장 많았다.

분기별로는 올해 1분기 11만337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2분기 7만5101가구, 3분기 8만394가구, 4분기 4만7224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공급 시점을 정하지 못한 물량도 7만6652가구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자체사업(도급 포함)을 통한 분양 물량이 총 22만6587가구(57.9%)로 가장 많았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분양 물량의 36.4%(14만2232가구)를 차지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아파트값 0.28% 상승…오름세 지속

전국 아파트값이 12월 마지막 주까지 강세를 이어갔다.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는 계속됐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2월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올랐다. 이는 지난주 대비 0.0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P 오른 0.06%로 집계됐다. 수도권(0.22%→0.23%)은 서울과 함께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5대 광역시(0.48%→

0.45%)와 지방(0.37%→0.33%)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0.6%)과 부산(0.58%)이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0.40%), 대전(0.36%), 경남(0.37%), 경기(0.32%) 등 대부분 지역의 매매값이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9%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 1.81%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1%P 내린 0.13%로 집계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언제

어디서나

HOME

OFFICE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 (군태관리, CRM, PMS, 경비창구, 웹빌드, 도메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마친 박범계, 갈등 해결사 되나

지원단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검찰과 관계 회복할지 주목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준비단을 꾸려 인사청문회 준비를 본격화했다. 박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청문회법에 따라 서울고검 내

에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했다.

박 후보자는 준비단 구성도 마쳤다. 이상갑 인권국장이 지원단장을 맡았고, 차순길 공공형사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부팀장은 강상목 개혁입법추진단부장이다.

이웅철 형사법제과장이 신상팀장을, 박철우 대변인은 공보팀장을 맡았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과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은 각각 답변팀장과 행정지원팀장을 담당한다.

이날 박 후보자는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에 대해 “인사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서도 “그 질문

도 잘 준비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 단행될 검찰 인사에는 “설명해드릴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를 풀어갈 전망이다.

특히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추 장관과의 갈등으로 벌어졌던 법무부 검찰의 관계 회복을 이뤄낼 인물로 꼽힌다. 다만 여당이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다.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자 박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응호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 장관 등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자 윤 총장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인가”라고 호통치기도 했다.

박 후보자가 취임하면 검찰 개혁 완수에 또다른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며 “그것이 제게 준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전두환 추징금’ 작년 35억 환수

2205억 중 970억 남아

검찰이 2020년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 미납 추징금 총 35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환수하고, 전날과 이날에 걸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 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 합계 21억 7600만 원을 환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전 씨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 원과 8월 안양시 임야 구매 매각금 10억1000만 원을 환수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무기징역도 함께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사면됐다.

현재 집행 금액은 1234억 9100만 원(집행률 56%)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압류했다. 이에 전 씨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했다. 법원은 일부 인용했다.

박기영 기자 pgy@

〈피아트크라이슬러〉

“배출가스 조작’ FCA 시정명령 적법”

법원 “환경부 조치 따라야”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를 판매했던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에 대한 환경부의 시정명령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FCA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2월까지 각종 수입차를 판매하면서 인증시험 때와 달리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시검사에 따르면 FCA코리아는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임의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해당 차종에 대해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허가한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7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CA 측은 “대부분의 주행이 완료되는 시간대인 1400초를 기준으로 EGR 가동률을 제한한 것으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엔진의 사고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한 것일 뿐 ‘임의설정’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설정이 해당 차종의 엔진을 보호하는 등 안전 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GR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엔진 부하·엔진 회전수·외기 온도·엔진 온도 등 여러 변수가 있음에도, 엔진 시동 후 특정 시간의 경과만으로 EGR 가동률을 기계적으로 저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장애인 시설 코호트 격리 중단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 긴급 분산조치 및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 촉구’ 농성을 시작하며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사
신간도서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박민준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웬스엔케어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www.pybook.co.kr 박영사

광고심의필 : 2020-1540-000500



체함 배탈 설사 넌 끝났어

뱃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같은 증상들을 제압한다~
동성제약 **정로환F**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평범한 증권맨에서 유튜버로 전성기 맞은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E-Biz팀 차장

작년 7월 유튜브 데뷔 최대 조회 수 55만회 팬덤 이끌어
고정 2곳에 방송 출연 잇따라...연말엔 투자전략 책도 내

실시간 시청자 수 평균 5000명대, 6526명 동시접속, 최대 조회 수 55만회. ‘염블리’라는 호칭을 얻으며 증권 유튜브 방송의 신예로 떠오른 염승환<사진> 이베스트투자증권 E-Biz팀 차장의 기록이다. 그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을 소유하게 됐다.

2005년 이베스트투자증권 영업팀에 입사해 15년간 증권맨으로의 일상을 지내온 그의 인생을 바꾼 건 지난해 7월 말 ‘ETF트렌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정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는 바로 한 달 뒤인 8월 구독자 95만 명의 ‘삼프로TV’에 고정 출연하게 됐고 그 이후 다수의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면서 구독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다.

구독자들에게 사랑스럽다는 의미의 ‘염

블리’로 불리는 그의 출연 영상에는 ‘염블리 방송을 하루라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긴다’, ‘아내가 나보다 염블리를 더 많이 본다’ 등 아이돌 영상에 달릴 법한 팬심이 깃든 댓글들이 게재된다.

염 차장은 “15년간 증권맨으로서 비슷한 일상을 보내다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변곡점을 맞게 됐다”면서 “‘블리’를 아무나 붙여 주는 게 아니지 않냐. 구독자들께서 성실함과 믿음이 가는 이미지를 좋게 봐 주시는 것 같다”며 웃었다.

실제 그의 일과는 아이돌만큼 뻘뻘하다. 염 차장은 오전 6시 반 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총 2개의 고정 유튜브 방송 촬영과 그 외의 섭외 방송 출연, 본업 등을 병행한다. 퇴근 후에도 자정까지 다음 날 촬영하게 될 방송과 본업을 위한 공부에 매진한



다.

염 차장은 “주변에서 지칠까 봐 많이 걱정도 해주시지만 본업이 고객들에게 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일이다 보니 매일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구독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 엔도르핀이 돈다”고 말했다.

그는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최근 책 집필에 도전했다. 염 차장은 “‘염블리는 주

린이(주식+어린이)들의 등대 같다’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표현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그런 이유에서 책을 쓰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책을 집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책에 그는 올해의 증시 전망을 담았다. 염 차장은 “2020년 증시가 급격히 올랐다면 2021년과 2022년 증시는 위로 오르는 방향이지만 진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올해 증시가 위로 가는 방향인 것은 확실한 만큼 성장성이 있되 아직 덜 오른 섹터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전장에도 적용 가능한 부품을 만드는 스마트폰 부품사들과 공장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린이들의 등대’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은 염 차장의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 그는 “예전부터 라디오 DJ의 꿈이 있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경제방송 DJ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KDB산업銀, 선임부행장 최대현
집행부행장에 박선경 준법감시인



KDB산업은행은 선임부행장을 신설하고 최대현<왼쪽 사진> 기업금융부문장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임 집행부행장에는 박선경<오른쪽> 준법감시인이 선임됐다.

산은은 “한국판 뉴딜, 녹색금융, 신산업·혁신기업 지원 등 신규정책금융 업무량 확대를 감안해 경영진의 적정 업무 분담 등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임 부행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선임 부행장은 각 1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타 집행부행장과 달리 4개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선임 집행부행장은 경영관리부문 부문장직을 맡게 되며, 최 선임부행장이 담당했던 기업금융부문은 안영규 산업·금융협력센터장이 부문장 직무대리로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양소영 △뉴미디어총괄행정관 권대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파견 김진중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토·해양감사국장 조성은 △시설안전감사단장 강성덕 △지방행정감사2과장 장남주 △국방감사단장 유인재 △특별조사국장 최달영 △심의실장 윤승기

◆기획재정부 △과장급 △소속세제과장 장영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원전기술과장 이준배 △원자력연구개발과장 권기석 △성장동력기획과장 정재욱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최미정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김미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신인식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 고덕기

◆교통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북부지청장 이창열 △부산지청장 김남정 △의정부지청장 공석원 △평택지청장 김덕곤 △포항지청장 권오형 △구미지청장 이후송 △전주지청장 전현철 △보령지청장 김경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성호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이병성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오세안

◆인사혁신처 △서기관(4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최명주 △인재제육국 인재정책과 박재영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유리 △윤리북무국 북무과 김승영 △기술서기관(4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박성민 △윤리북무국 윤리정책과 이윤경

◆통계청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과장 권대웅 △법제지원과장 윤재웅 △행정법제과 법제심의관 김성원 △과장급 전보 △법제조정법제관 이진희 △법제교육과장 진정용

◆통계청 △일반고위직공무원 임용 △통계교육원장 서운주

◆문화청 △과장급 전보 △반도체심사과장 조광현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 이종재 △제약기계심사과장 최일승 △건설기술심사과장 윤세영 △계측기술심사팀장 이기현 △재료금속심사팀장 최기혁 △특허심판원 심판장 강전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준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여원현 △특허심판원 심판장 나광표 △특허심판원 심판장 황윤구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재현 △특허심판원 심판장 강정석 △국제교육과장 이병재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문화재보존과장 강경환 △과장급 임용·전보 △문화재정책과 무형문화재과장 변지현 △문화재보존과 보존정책과장 김동하 △문화재보존과 유형문화재과장 이종희 △문화재활동국 근대문화과장 장철호

◆한국소비자원 △1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이정구 △2급 승진 △기획조정실 경영혁신팀장 이상훈 △경영지원실장 김준남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장 최운선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지광석 △3급 승진 △대외홍보실 기업협력팀장 박준용 △기획조정실 경영혁신팀 이종원 △안전감사국 제품안전팀장 서영호 △경기지하철 정보통신팀 김재인 △서울지하철 금융보험팀장 장맹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장 김준권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이희경 △서울지하철 자동차팀 양종석 △안전감사국 생활안전팀장 심성보 △부서장 전보 △서울지하철 박현주 △분쟁조정사무국장 장은경 △대외홍보실장 이진숙 △피해구제국장 박정용 △시장조사국장 김대중 △국립교육국장 최재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임동희 △도시재생본부장 김백용 △건설기술본부장 장형국 △부서장 △홍보실장 정경호 △안전기획실장 김홍래 △기획조정실장 피복석 △경영관리실장 양치

훈 △사업계획실장 윤보석 △재무처장 이영봉 △판매기획처장 김재경 △IT기획운영처장 이영미 △인사관리처장 조경숙 △노사협력처장 김형주 △법무실장 김철수 △인재개발원장 조은숙 △공정계약단장 심상운 △주거자산관리처장 이순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윤복산 △중앙공동주택관리본청조정위사무국장 박상수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신경철 △공공택지사업처장 채우국 △도시사업처장 이병하 △도시기반처장 이상욱 △공간정보처장 임봉철 △사업영향평가단장 최성진 △신도시사업부문장 김 신도시기획처장 이대영 △신도시사업부문 신도시사업혁신단(TFT)장 황필재 △공공주택기획처장 오우현 △공공주택사업처장 오우호 △공공주택설비처장 박경기 △공공주택전기처장 이이문 △산업단지처장 한종덕 △부동산금융사업처장 김휘년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유금수 △글로벌사업처장 이진소 △남북협력처장 이상일 △뉴퀘이트사업단장 송종호 △도시재생계획처장 이재웅 △도시재생주택처장 이희석 △도시건축사업단장 천병삼 △단지기술처장 문홍철 △건설관리처장 정상훈 △기술심사처장 오희석 △동반성장처장 배창영 △연구기획처장 허남일 △보수복지혁신단장 김동섭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신순애 △기획조정실장 김훈택 △급여보장실장 임동하 △건강관리실장 홍영삼

◆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지역본부장 전보 △경영지원실장 김성호일 △국민소통실장 윤준선 △가입지원실장 정병우 △연금급여실장 최진 △고객지원실장 정대규 △국제협력센터장 김석영 △장애인지원실장 강덕원 △장애심사실장 송미령 △기초연금실장 박준경 △감사실장 조준문 △정보전략실장 양광복 △ICT센터장 조정훈 △미래혁신단장 최석영 △지능정보기술추진단장 유진선 △사각지대해소추진팀장 최동식 △서울북부지역본부장 김미경 △경인지역본부장 신동관 △광주지역본부장 이승훈 △대구지역본부장 박기정 △부산지역본부장 이재영

◆한국광해관리공단 △전보 △경영지원실장 이진수 △기술연구소장 백승한 △연구개발실장 박관인 △분석평가실장 박재현 △강원지사장 양인재 △경인지사장 이상환 △호남지사장 최재익 △경인지사 사업관리부장 정명주 △호남지사 사업관리부장 주상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보>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경숙 △금융사업본부장 박성호 △소상공인본부장 김우오 △상생협력본부장 임준인 재난지원본부장 김성근 △지역본부장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남영주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수암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이정옥 △실장 △감사실장 지용하 △사회적가치실장 김현석 △기획조정실장 박경모 △인재혁신실장 김원범 △경영지원실장 강성환 △디지털전략실장 이봉희 △온라인혁신실장 김철호 △금융지원실장 양숙경 △채권관리실장 윤수정 △창업성장실장 박상규 △제기지원실장 송하영 △유통지원실장 김종순 △상관육성실장 김영기 △마케팅지원실장 오운배 △소공인지원실장 김은경 △협업지원실장 강계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직 발령> △부원장 △부원장 오익현 △본부장 △서남본부장 정재환 △기획조정본부장 강경남 △산업기술전략본부장 강경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이혜진 △부장급 △감사부장 이종범 △경영기획부장 최창욱 △경영지원부장 김진우 △사업지원부장 박진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소소재연구데이터센터장 허용학 △바이오분석표준그룹장 배영경 △방사선표준그룹장 김인중 △중소기업협력그룹장 강우현 △안전보안실장 박영재

◆한국원자력연구원 △단장급 △이진우 방사성폐

기물통합관리단장 △최기용 하나로중성자연구단장 △이병호 혁신SMR사업단장 △부·센터장급 △우충근 안전방호부장 △박성빈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장 △박대웅 방사성폐기물화학분석센터장 △최인길 스마트안전전단연구부장 △윤한영 가상안전기술개발부장 △서경석 환경·재해평가연구부장 △유인욱 중성자과학부장 △선광민 하나로이용부장 △정용진 연구로핵연료부장 △당장정 가속기개발연구부장 △손광재 동위원소연구부장 △조용준 핵주기기반기술연구부장 △이효직 핵주기시험평가부장 △강한욱 SMART원자로기술개발부장 △김종욱 SMART계통기술개발부장 △김경표 한·사우디아라비아공동연구센터장 △박찬국 혁신SMR사업관리부장 △김수형 혁신SMR기술관리부장 △조진영 혁신SMR원자로개발부장 △이동형 혁신전략부장 △류재수 국제전략부장 △박상준 기획부장 △김경배 행정부장

◆항공안전기술원 △보직 변경 △항공기술본부 항공기술본부장 이원식 △항공인증본부 항공인증본부장 최유훈 △미래항공연구본부 미래항공연구본부장 강창봉 △기화혁신본부 기획전략실장 임재현 △원장 직속부서 데이터분석연구센터 안전자료분석연구센터장 최영재 △항공기술본부 항공안전연구실장 남창우 △원장 직속부서 UAM안전지원센터장 전송목 △항공기인증본부 항공기인증실장 백운용 팀장 △항공기술본부 보안항행인증실장 김요식

◆한국산업정보원 △임원 승진 △전무 조방수 △상무 박배철 △상무 김응수

◆예술의전당 △본부장 △경영본부 윤동진 △예술본부 박상훈 △문화본부 김미희 △실장 △감사실 고영근 △단장 △공익사업단 김세연

◆부산항만공사 △1급 승진 △재난안전실장 서정태 △경영지원실장 윤정미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김명섭 △본부장 박창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책연구팀장 정해혁 △연구소인정팀장 노현석 △기술혁신지원팀장 홍명기 △연구사무소장 김세성

◆신한생명 △부서장 △상품연구소장 직무대행 겸 상품기획팀장 김종태 △재해보상부장 직무대행 박노인 △FC본부장 직무대행 겸 FC지원팀장 윤상경 △B2B사업그룹장 직무대행 겸 GA사업팀장 김병환 △제리본부장 직무대행 겸 제리팀장 겸 최적가정보텔팀장 양해직 △ICT그룹장 직무대행 겸 IT통합1 TPT PM 김종신 △투자금융본부장 직무대행 겸 부동산금융팀장 우석문 △고객전략팀장 겸 고객관리팀장 이후경 △채널기획팀장 임현진 △디지털플랫폼팀장 김민지 △채널지원팀장 최명복 △마케팅팀장 서상현 △상품개발팀장 겸 상품모델링팀장 겸 상품소재팀장 김상모 △엔터테인먼트팀장 이효미 △디지털기획팀장 겸 헬스케어사업팀장 이현식 △디지털혁신팀장 신수연 △빅데이터팀장 주진모 △인사팀 HR혁신파트장 고희학 △홍보팀장 겸 브랜드팀장 임병석 △보험금심사팀장 겸 SIU팀장 노태경 △투자금융팀장 신운식 △퇴직연금사업팀장 겸 퇴직연금운영팀장 박종혁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부서장 선임 △자동차상품파트장 홍석민 △인재개발파트장 강병식 △마케팅기획파트장 송진호 △데이터마케팅파트장 강혜진 △특종파트장 이재선 △자산운용관리파트장 정운중 △IT파트장 김은배 △성남지역단장 유현 △TC지원파트장 박성순 △TC지방권사업부장 정주영 △안양안산지역단장 장시경 △충남지역단장 김현섭 △수도GA1사업단장 박희준 △자산서비스파트장 황현선 △호남GA사업단장 김현 △법인영업1부장 이종희 △법인영업6부장 정명화 △부서장 전보 △경영관리파트장 이오수 △자동차보상지원파트장 강동우 △부

산보상부장 백재호 △채널심사파트장 김별기 △다이렉트자동차사업부장 서방열 △다이렉트기밀발행사 업무부장 이영근 △개인마케팅파트장 오창우 △TC수도권사업부장 김민중 △경인지역단장 주일권 △대전지역단장 이정일 △수도GA3사업단장 이호열 <KB순해사장> △대표이사 사장 한동석 <KB순보CNS> △대표이사 및 업무본부장 사장 이인오 <KB플론다이프케어> △대표이사 사장 전영산

◆오렌지라이프 △임원 신규 선임 △정근수 부사장 GIB사업그룹장 △배행철 상무 고객전략그룹장 △이영재 상무 B2B사업그룹장

◆신한금융투자 △이사대우 승진 △인사부 김계룡 △법무실 김용필 △TFC영업부 신운주 △Special Situation부 오승준 △PBS사업부 이효찬

◆하이투자증권 <신규 보임> △실장·WM센터장 △기업문화실장 강수환 △기업금융실장 이종혁 △WM지원실장 성홍우 △강남WM센터장 이봉석 △대구WM센터장 최상윤 △부산WM센터장 이정선 △부서장 △WM지원부장 강만석 △랩은용부장 표진수 △채권금융부장 여인수 △부동산금융3부장 임준홍 △중앙지점장 정종필 △서면지점장 남태식 △김해지점장 정성원 △월배지점장 김중수 △부산WM1지점장 이원정 <이동> △부서장 △디지털전략부장 양용인 △경영기획부장 류시웅 △여의도영업부장 조경휘 △양산지점장 최준호 △창원지점장 김창재

◆신한금융정보 △상무 신규선임 △카드사업본부 상무 이명민 △디지털혁신본부 상무 겸 경영혁신단 상무 문진호 △상무 재선임 △영업추진본부 상무 겸 신성장추진단 상무 홍연철

◆한국산업평가 △전보 △C&C(Commercial & Communications)총괄본부장 양현조 이사 △금융·구조화평가본부장 김용진

◆SGI서울보증 △본부장 승진 △마케팅·상품본부장 윤민우 △IT본부장 김종환 △전략영업본부장 조영록 △글로벌사업본부장 정범소 △구상지원본부장 조홍진 △인사·총무본부장 이규민 △본부장 전보 △KCB본부장 윤정섭 △강남본부장 이덕용 △강서본부장 김부은 △충주본부장 윤운수 △보상지원본부장 추병관 △영남본부장 심성보

◆충흥건설그룹 △전무이사대우 승진 △건축부 이경호 △공사관리부 문영민 △상무이사대우 승진 △안전부 임재훈 △토목부 정동국 △토목부 박찬진 △나주관개발 김석호

◆EBS △교양제작부장 김한중 △미래콘텐츠키획 프로젝트팀장 백경석 △미래교육기획부장 남내원 △에듀테크부장 고장원 △확속콘텐츠협력제작부장 박성웅 △영어인공지능프로젝트팀장 김은희 △기술기획부장 정효성 △네트워킹기술부장 이정택 △제작기술부장 김호식 △영상기술부장 추신호 △편집부장 이덕희 △광고사업부장 이경미 △정책기획부장 황준성 △홍보부장 이지연 △인사부장 김기홍 △그래픽디자인부장 윤영원 △영상제작부장 김용삼 △스튜디오영상상무장 정호균

◆SBS A&T △승진 △기술영상본부장 임관수 △경영사업과장 홍사진 △미술본부 아트1팀 김재준 △기술영상본부 제작기술팀 김홍규 (이상 부국장급) △경영사업과 사업기획팀장 노영진 △미술본부 아트1팀 조병용 △ 아트2팀 남원주 △ 아트3팀 이익수 △기술영상본부 영상제작1팀 이형석 △보도영상본부 영상취재팀 박대영 △ 영상취재팀 전경배 △ 영상취재팀 조정영 △ 영상취재팀 주범 △ 보도기술팀 김광필 (이상 부장급)

◆JT조선 △취재본부 디지털산업부장 이진 △디지털산업부장 차창 김형원 △디지털경제부장 직무대행 유진상 △뉴스레터팀장 이윤정

중생수업체 농부산취안 창업자
중산산, 아시아 최고 부자 등극

중국 생수 업체 농부산취안과 제약업체 완타이바이오의 창업자 중산산<사진>이 아시아 1위 부호 자리를 차지했다. 한때 중국 최고 부자였던 마윈 알리바바그룹홀딩 창업자는 아시아 5위로 밀려났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산산의 재산은 778억 달러(약 84조 4130억 원)로 세계 11위이자 아시아 1위에 올랐다. 중산산은 지난해 재산이 무려 709억 달러 증가한 끝에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 회장을 앞질렀다.

중산산의 재산이 급증한 데에는 완타이바이오와 농부산취안의 연이은 상장 대박이 큰 몫을 했다. 완타이바이오는 지난해 4월에, 농부산취안은 같은 해 9월에 각각 상장했다. 농부산취안은 홍콩거래소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85% 상승하며 대박을 터뜨렸고, 지금까지 주가가 155% 급등했다. 완타이바이오의 주가는 상장 이후 지금까지 2000% 이상 폭등했다. 중산산 창업자는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업가들과 얽혀 있지 않아 중국에서는 ‘외로운 늑대’로 표현된다. 상장 전에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

아시아 1위 부자였던 인도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재산은 769억 달러로 집계돼 2위로 밀려났다. 암바니 회장의 재산은 지난해 183억 달러 늘었다.

최혜림 기자 rog@

부음

▲박승자 씨 별세, 곡용섭(쌍용차 홍보1팀장) 씨 장모상 = 31일, 경북 영천 국화원 장례식장, 발인 2일, 장지 영천국화원, 054-331-4444

▲박배술 씨 별세, 박만영(콜픽 회장) 씨 장모상 = 31일, 밀양농협장례식장 VIP실 2층, 발인 2일 오전 9시, 055-355-8525

▲리도을 씨 별세, 라준배(임실 강진파출소장)·혜수(서울교통공사 차장)·제기(한국일보 영화전문기자) 씨 부친상, 배성환(인천교통공사 관리역장) 씨 장인상, 류연미(도음협동조합 이사) 씨 사부상 = 31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일 오전 8시, 063-250-1443

▲김복선 씨 별세, 장재진(오리엔트그룹 회장) 씨 모친상 = 30일, 경북포항제일장례식장 VIP 301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054-293-1161

이슈&인물

국내 건설사업관리 분야 현주소

류 중 수 펌코CM 대표

“건설사업관리 요체는 신뢰와 소통”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은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담당해왔던 중요한 한 축이었으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건설)기술자들이 사회적으로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돼야 하며, 건설산업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 이는 최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인재 영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젊은 인재들 설계·시공사로 빠져나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펌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펌코) 본사에서 류중수 펌코CM 대표를 만났다. 현장에서 20년, 펌코CM 대표로 11년. 무려 30여년간 건설산업에 몸을 담아온 류 대표의 목소리에는 현장의 생생함이 담겨 있었다.

류 대표는 인터뷰 내내 기술자들의 권익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보통 건설업에 대해 생각하면 설계나 시공 등을 우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인식은 실제 업무에서도 작용해 과거에는 설계 단계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최근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기술자들은 시공 단계 현장에서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입돼 설계자와 함께 사업 전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류 대표는 지적한다. 그는 “건설 관련 기술자들이 양성되는 과정만 하더라도 설계나 시공에 집중돼 있다”면서 “몇몇 대학에 건설사업관리학과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건설 관련 학과에서 건설사업관리학과목을 가르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건설사업관리분야에 대한 인식과 지식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대다수 젊은 인재들이 시공사나 대형 설계업체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류 대표는 설명했다. 류 대표가 기술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건축사사무소의 특성상 전문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유휴기간 장기휴가로 직원들 채용전

류 대표는 1997년 펌코의 전신인 도시건축사사무소를 세웠다. 이후 2006년 감리 전문회사로, 2010년 건설기술용역 전문회사로 사업을 확장했다. 현재 펌코는 설계와 감리, PM(Project Management), CM(Construction Management)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과 실적을 쌓으며 종합건축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했다. 올해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펌코는 약 1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류 대표는 그 비결로 ‘신뢰·소통’을 꼽는다.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철학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기술과 특화된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뢰는 소통에서 오고, 소통은 듣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사업을 기획·구상하며, 사용자와 관리자의 요구에 적극 호응한 것도 비결”이라고 귀뜸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행복이 회사 경쟁력을 높인다’는 펌코의 기업 문화라고 류 대표는 강조했다.

류 대표는 “직원들이 회사의 최고 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펌코프리제도, 직무발명제도 등 직



류중수 펌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건설업 하면 보통 설계·시공 생각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인식 낮아

초기 단계부터 사업 전반 주도

처우 개선돼야 전문인력 몰릴 것

코로나 시대 변화 선제적 대응

고객경험·운영관리·비즈니스모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둘러야

챗봇 접목한 ‘펌봇’ 공동개발 중

원들이 우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펌코CM만의 근무 여건 조성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직원들과 격의 없는 열린 소통을 중시한다는 류 대표는 직접 음식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임원들과는 예정에 없는 깜짝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사업 종료 이후 유휴 기간에는 장기 휴가를 의무화해 여가활동과 자기 개발 등 재충전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타 회사와 차별화된 복지 제도다.

열린 소통, 수주 실적으로 나타나

직원들과의 이 같은 열린 소통은 곧 실적으로 나타났다. 펌코가 감리에 나섰던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성과 역사성, 공익적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해 낸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류 대표는 “장충체육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색강판으로 설계된 지붕패널을 내구성이 높은 알루미늄패널로 구성 변경을 제안하는 등 역사와 첨단이 조화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

펌코는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뿐 아니라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 EBS방송국 디지털 통합사옥 등의 업무 시설,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국대학교 신공학관 등의 교육연구시설은 물론이고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등의 문화시설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적을 쌓고 있다.

특히 서울재사용 플라자 건설사업관리, 마포구민체육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및 장충체육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설계의 품질 향상과 시공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서울시 건축 분야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건설상을 받기도 했다.

민간분야에서도 일산탄현 두산위브더제니스, 광고신도시 1-1BL 오피스텔, 인천 청라 국제금융단지 공동주택 등 사업에 참여했다.

매출 대비 3% 이상 연구개발 투자

지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건설업계는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 2~3년이 문제라고 류 대표는 판단했다.

류 대표는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건설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계에서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고객 경험, 운영·관리, 비즈니스 모델 등 기업 활동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펌코도 이에 발맞춰 인프라 신사업 확대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현재 수주와 건설사업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플랫폼 시스템(Platform System)을 구축 중에 있다”며 “챗봇(Chatbot)을 펌코의 건설사업관리 시스템에 접목하여 활용하기 위한 펌봇(Pem-bot : Project Engineering Management A.I Robot) 시스템 등을 전산 전문업체와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플랫폼 및 펌봇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면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각종 연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연매출 대비 3% 이상을 연구비로 투자해 기술 개발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사설

포스트 코로나 성장복원 정책 쇄신 급하다

2021년 새해다. 희망과 기대보다는 안갯속의 답답함과 비관이 앞선다. 코로나19에 휩쓸려 지쳐 있는 국민들은 커지는 불안과, 언제 일상의 안정을 되찾을지 기약없는 현실에 전전긍긍한다.

코로나19는 지금도 감잡을 수 없이 번진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 1년 동안 세계 확진자 8200만 명, 사망자 180만 명이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도 6만740명, 사망자 900명이다. 공포의 감염병 확산에 경제와 민생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시간’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2020년 우리 경제는 -1%대의 역성장이 확실하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다. 수출·소비·투자가 모두 쪼그라들면서 ‘고용절벽’으로 이어졌다. 취업자수·실업률 등 고용지표 모두 최악이다. 게다가 정부의 거둬들인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전셋값이 민생의 고통만 키운다.

새해도 아직 암담하고, 반전(反轉)의 기대가 어렵다. 희망적 신호가 없지는 않다. 미국, 유럽 등에서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효능이 입증되고 집단면역의 성과로 이어진다면 세계가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와 우리 경제도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은 3.2%로 내다본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활력 회복이 정책 방향이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한 대규모 ‘돈풀기’로 내수·투자·수출을 진작하고 고용 안정에 주력기로 했다. 작년 위낙 내뿜던 경제의 올해 플러스 성장 수치는 기저효과다. 그럼에도 낙관에 치우쳐 있다. 계속 악화하는 코로나 재확산을 감안하지 않은 한국은행의 성장 전망은 3.0%, 국제통화기금(IMF)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에 그친다. 고용이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일 자리는 줄기만 하고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코로나 불황을 더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공포가 닥쳐온다. 한은은 돈 벌어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율이 2019년 14.3%에서 작년 21.4%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파산과 고용시장에의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 백신 보급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충격이 커지면 민생도 경제도 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여건은 나빠지지만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은 말살됐다. 정부·여당이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도 외면하고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엮인 데 덮쳐 기업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自害)다.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경로를 복원하려면 경제 자유를 키우는 정책과 제도의 전환기적 쇄신이 가장 시급한데 거꾸로만 가는 현실이다.

영화로 보는 세상

‘검찰개혁’ 해설 드라마 ‘비밀의 숲 2’

살면서 검사와 딱 두 번 부딪힌 적이 있다. 20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만난 검사는 머릿속에 그려보던 검사의 이미지와 싱크로율이 매우 높았다. 금테 안경에 빼쩍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느물거리며 물어보다가 느닷없이 소리를 치며 겁을 주던 검사였다. 세월이 좀 흘러 이번엔 가진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지방 지검의 검찰청에 아버지와 함께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나에게도 여전히 거인 같은 분이셨던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그만 권위가 추락하고 만다. 다리를 잠시 꼬고 있다가 새파랗게 젊은 검사에게 불호령을 들었던 것이다. 말도 거의 반말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정말 극혐의 이미지였다.(물론

두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각론에는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있는 듯하다. 또 검찰개혁의 실내용이 무엇이나 몰으면 정작 명쾌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 방영된 tvN의 16부작 ‘비밀의 숲 2’는 검찰개혁, 검사 기소독 점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현안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는 다큐드라마 같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닥뜨린 검찰과 경찰의 대표 선수로 다시 만난 검사 황시목(조승우)과 형사 한여진(배두나)은 과거 은폐된 살인 사건들의 진실을 하나씩 벗겨 내면서 검정의 민낯마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시즌1의 인기를 얻고 쉽게 시청률의 안



정권에 들어섰으나 시청자들의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기도 하였고, 초반에는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중반에는 지루하게 늘어진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드라마 막바지에 이르자 1회 첫 장면으로 나왔던 사건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연속적인 파장을 내더니 최종회에 이르자 흐드러진 퍼즐이 깔끔하게 맞춰지는 짜릿함을 안겨 준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자리하고 졸렬한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모든 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임을 새해에는 모두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웃음소리가 해를 닮은
나의 친구야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더 많이 웃자
해 아래 사는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노래하자
갈수록 할 일이 많고 걱정도 많아
때로는 울고 싶은 친구야
달려오는 새해에는
우리 좀 더 씩씩해지자
힘차게 항해하는
바다 위의 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자

이해인
새해에는, 친구야
중에서



희망으로 시작하는 2021년
모두가 건강한 새해를 기원합니다